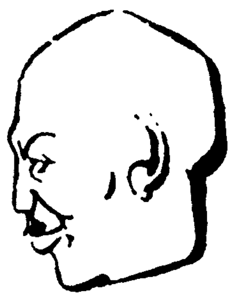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金) 本紙朝夕刊十面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滅亡하는東北軍 張氏、更生을晝策

于學忠王以哲等과連日協議 蔣張兩氏正面衝突?



蔣介石氏

張學良氏

【天津二十五日發聯合】張學良氏는 二十二日 成安到着以來 連日 于學忠、王以哲、徐向前、李生達、高桂滋、慶炳員等 舊東北軍將領과 表面上捕共工作에 對하야 協首協議를 繼續하고 잇는데 其實은 舊東北軍 更生問題에 關한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信憑할 側의消息에 依하면 張學良氏는 同會議에서

나는 外遊하고 歸國한以來 蔣介石氏를 擁護하하야 蔣介石氏는 자못 冷酷한 態度로 四川에 逃避하고잇는데 最近의 河北事件에 對하야 蔣介石氏는 舊東北軍을 모다 捕共第一線에 내세우고 何等 地盤保證을 與하지안흘뿐아니라 八月以後 夏期가 끗남을 기다려 成安討伐을 準備하고잇다 이에 對해서도 舊東北軍을 第一線에보내어 그 自然消滅을 期待하고잇다 蔣介石氏一人의 欲望을 達成하기爲하야 우리舊東北軍이 모다 그犧牲이 되고말것이냐 라고 熱淚를 뿌리며 訓示하엿다고 한다 今後 舊東北軍의 動向은 자못 注目된다

十一月開會될 第六中全會議

中國政府에 劃時期?

【南京二十五日發聯合】第六中全會議를 九月下旬 開催키로 決定한것은 十一月 開會豫定인 五全大會의 準備交涉으로
一、大會期日의 確定
一、議題의 決定
一、大會에 對한 中央黨部의 方針協議
等을 中心으로 最近 中央에서 問題가 되어잇는 訓政期로부터 憲政期에의 移行政權解放等의重要案件에 關하야 中央側 最後의 意向을 決定하려는데 잇서 會議의 進行 如何로는 國民黨將來의 歸趨를 決定할뿐아니라 中國政局의 動向에 一時機를 劃할 重大會議라고 注目되고잇다

聯盟은不脫退 伊外務省代辯者談

【電通羅馬廿五日發】伊에紛爭에 關한 聯盟理事會를 압두고 聯盟과 伊太利의 正面衝突은 不免하게되더라도 그結果 伊太利는 聯盟脫退를 敢行할것이라는 臆測이 頻頻히 行하고잇는데 右에 對하야 伊太利外務省의 代辯者는 廿五日 如左히 말하엿다

지금 伊太利는 聯盟을脫退할 意思는 絶對로업다 脫退風說은 全혀 誤傳이다

따늄新協約 近近調印

【羅馬二十五日發聯合】따늄會議가 流産에 歸한 結果 따늄不干涉協約案도 同時에 流産에 歸한것가튼 印象을 與하고잇는데 뭇솔리니 首相은 에디오피아征討의 師를 起함에 압서 中南歐洲의 懸案을 處理하야 後顧의 念慮를 업시하는 見地에서 關係各國政府와 協力折衝을 遂한 結果 이미 協約案의 起草를 了하야 特히 會議를 기다리지안코 數週間內에 따늄、羅馬의 協約案에 調印을 하게될터이라고한다

莫府勞組會舘서 第七回콤민테른大會

全世界六十五個國數百名代表出席 今後鬪爭對策討議

(寫眞은 스탈린氏)

【莫斯科二十六日發聯合】第七回콤민테른萬國大會는 二十五日午後七時 莫斯科勞働組合會館에서 全世界六十五個國代表 數百名出席裏에 開會劈頭 獨逸共産黨代表가 開會辭를 述한다음 幹部會의 選擧가잇고 最後로 蘇聯記長 스탈린氏에 對한 祝賀를 可決하고 第一日의 會議를 終了하엿는데 第六回大會以來 七年人재인 本大會의 使命에 對하야 콤민테른機關革命共産主義誌는 가로되 今回의 萬國大會에서는 第六回大會以來 生한 階級의 變動을 認識하고 全世界의 勤勞大衆에 對한 一般革命的任務를 指摘하야 새로운 革命想을 戰爭에 如何히 對處할가를 알지안코는 안된다

에國在留伊人에 伊政府撤歸命令

【아디스아베바二十五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國內에 在留하는 自國民四十名에 對하야 全部 撤歸를 命令하엿다 에디오피아國全土를 通하야 依然 在留하는 伊太利人은 公使及公使館員만이다 一方 에디오피아國內에 在留하는 에게海諸島嶼民中 婦女子四十名에 對해서도 에디오피아撤歸를 命令하고 男子에 對해서는 撤歸를 勸告하엿다

伊의反日英運動 言論에서街頭에!

【電通羅馬廿五日發】伊太利反日英運動은 言論으로부터 街頭데모에 올머 二十五日 約一萬五千의 群集은日英、에디오피아攻擊의旗、諷刺畵를 들고 大데모를 한다음 首相官邸인 베네차宮에向하야 行進하야 同宮殿前에서 무首相의 萬歲를 불러 氣勢를올렷다

라발首相壽府行

【巴里二十五日發聯合】라발首相은 親히 理事會에 出席하야 英國代表 이든無任所相과 協力하야 聯盟의 破局處理에 最後의 努力을 試하기로 되어 二十九日夜 又는 三十日午前 巴里出發 壽府에 赴할터이다

三十一日聯盟 特別理事會開催

【巴里二十五日發聯合】라발首相은 클락英國大使、압놀事務總長等과 數回에 亘한 折衝을 遂한結果 來三十一日 特別理事會를 召集키로 決定하고 佛國外務省은 二十五日夜 如左히 發表하엿다

聯盟理事會는 五月二十五日의 決議에 基하야 來三十一日 特別會議를 開催하고 伊에兩國紛爭에 關한 審議를 遂하기로 決定하얏다

伊太利政府突如 和協仲裁繼續要求

【羅馬二十五日發聯合】聯盟理事會의 開會를 압두고 伊太利政府는 突然 和協仲裁手續의 繼續을 要求하기로 決定하고 아디스아베바駐箚公使를 通하야 에디오피아政府에 對하야 交涉繼續을 要請하는 同時에 스비치外務次官의 名義로 압놀事務總長에게 對하야 右方針을 通達하엿다

和協手續續行 伊政府通牒文要旨

【壽府二十五日發聯合】聯盟事務局은 二十五日和協手續續行에 關한 伊太利政府의 通牒을 接受하고 卽時 全文을 發表하엿다 通牒의 內容要旨는 如左하다

一、伊太利政府로서는 委員會의 討議가 專혀 和協仲裁의 協約範圍內에 限定되는限 언제든지 和協委員會에 對하야 事務執行의 用意가잇서 去十四日 이미 聲明을 發하야 自國의 立場을 宣明하얏다

一、또 伊太利政府는 二十三日 아디스아베바駐箚公使를 通하야 和協手續續行에 對하야 에디오피아政府에 提案하여다

에國政府끗까지 規約十五條適用要請

【아디스아베바二十五日發聯合】에디오피아 政府는 聯盟理事會에 對하야 끗까지 規約第十五條에 基하야 紛爭의 全面的檢討를 要請하기로 決定하고 二十四日 압놀事務總長에게 電報로서 通牒을 發送하엿다

話題解說 몬로主義

◇

昨紙의 報道는 루즈벨트大統領은 將來 世界의 어데서든지 戰爭이 發生한 境遇에 그 累가 米國에 及할 可能性이 잇스므로 米國이 戰爭에 휩쓸려 들어가는것을 沮止함에 有効한 中立維持의 機構를 立法化해를 意向이라고 言明하야 끗까지 몬로主義로 一貫할것을 表明하엿다고한다. 우리는 여기서 몬로主義의 意義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자.

◇

몬로主義(Monroe's Doctrine)는 米國 第五代大統領 제임스·몬로(1758—1831)가 表明한 「米國人의 米國」이라는 米國外交方針의 基調的政策을 云謂함이다. 歐洲의 政治에 關與하지안코 또 歐洲諸國의 亞米利加大陸에 對한 干涉을 排除하는 외 상에 以來 傳統的으로 唱道해 온 米國의 外交方針인데 이것을 一八二三年十二月二日 몬로大統領이 議會에 보내는 敎書中에 正式으로 宣言한것이다. 이 契機가 된것은 米大陸에 잇서서의 西班牙植民地의 獨立運動援助、歐洲의 保守主義의 牙城으로 此等獨立運動을 壓迫하려는 神聖同盟에 對한 牽制의 目的과 延하여는 自己保全의 宗體를 期하기 爲한것이엿다. 그內容의 要旨는 이러하다.

◇

(一)亞米利加大陸은 留後 歐洲列強에 依한 新植民地의 區域으로 認定할것이 아니다.

(二)歐洲列強 自身에 關한 事項의 紛爭에는 米國은 從來 干涉하지 아니하엿고 또 干涉하는것은 米國의 政策에 反하는것이다.

(三)米國은 歐洲列強의 政治組織을 亞米利加大陸의 어느部分에 延長하려는 企圖로써 米國의 平和安全을 危殆케하는것이라고 看做하고 또 米國이 承認한 新獨立政府에 對한 歐洲列強의 壓迫干涉을 米國에 對한 非友誼的表現이라고 解釋한다.

◇

이宣言以來 米國의 外交는 몬로主義로 一貫되고 歷代大統領이 이主義를 擁用하여다、다만 米大陸에잇서서의 米國의 政治的經濟的發展、國力의 充實은 自然 몬로主義의 內容과 解釋에 變化를 招來하야 自國의 立場으로부터 中南米의 保護主義의 色彩를 濃厚하게되고 中南米에 잇서서의 米國霸權政策의 有力한 武器의 役割을하게된것은 事實이다 이것이 윌손大統領때에 大戰參加 平和會議出席等으로 歐洲政治에 關與하고 마키레氏의 對中門戶開放 機會均等의 主張及對中九個國條約의 締結에 依한 極東에 잇서서의 經濟的進出企圖로 몬로主義는 當初의 意義를 失하게되고 그內容을 一變하게되엿섯다. 이번에 루大統領이 다시 몬로主義的態度를 宣言한것은 여러가지로 注目된다.

警察官表彰

今回의 滿洲事變에 關하야 特히 功勳이잇슨 國境第一線警察官及 關東軍에 應援으로派遣되얏든警察官二千七百十九名에 對한 論功行賞은 七月二十六日附로써 發表되엇다 右中 勳章을授與바든者는 千二百七名으로 其中 功績拔群으로 殊勳에 該當하야 特히 年金을 下賜바든者는 左記五名이다

道警視 衛藤 泰
道警部補 松戶 亮
道警部補 中垣 勇雄
道巡査 許 俊
同 牧內 正吉

小原法相歸京

【東京電話聯合】小原法相은 去十一日 東京出發 札幌控訴院管內 其他의 視察을 終了하고 二十六日午前十時二十五分 上野驛着 歸東하엿다

人事·集會

▲宇垣總督(渡東中이던 宇垣總督은 矢野秘書官 戶之內屬等을 帶同하고 今二十六日午後六時 關釜連絡船으로 釜山上陸、海雲臺에서 一泊하고 明二十七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驛着으로 歸京하기로 되엿다
▲白石光治郞氏(朝鮮總督府事務官) 新任人事次來社
▲王熙弼氏(朝鮮總督府屬)本社落成人事次來社
▲高橋茂太郞氏(三井物産 株式會社參事)東京本店에 轉任人事次來社
▲小川彌太郞氏(三井物産 株式會社京城支店長) 新任人事次來社
▲李奎赦氏(鮮一紙物會社支配人) 二十六日夜京城驛發大阪에出張
▲崔榮淳氏(高陽郡纛島面長)水災救護人事次二十六日本社來訪
▲趙重傑氏(同面書記) 同上
▲金晶海氏(朝鮮佛敎中央敎務院理事) 本社新築落成祝賀次來社

衛生課長會議審議案

二十四日부터 總督府에서 開會되야 政務總監의 訓示가잇고繼續하야 議事에들어가 二十六日에마치게 되엇는데 今般會議의 指示注意事項은 如左하다
一、道立醫院의 經營에 關한件
二、道立醫院의藥品經理에關한件
三、朝鮮麻藥取締令의 分布에關한件
四、痲藥類中毒者의 根絶에 關한件
五、飮食物取締에 關한件
六、溫泉鑛泉調査에 關한件
七、「콜」의 衛生措置에 關한件
八、防疫措置의 徹底에 關한件
九、지프테리아豫防救治에關한件
十、種痘의 普及徹底에 關한件
十一、朝鮮癩豫防令運用에關한件
十二、鼻疽豫防制遏에 關한件
十三、狂犬病豫防에 關한件

海軍縮本會議 年內開催는困難

外務當局의觀測

【電通東京電話】몬셀英海相의比率主義抛棄宣言은 日本에 對하야 相當한 好感을 與하고잇스나 外務省最高首腦部에서는 오히려 悲觀的觀測을 가지고 今年內에 軍縮本會議를 開催하는것은 困難하리라고 豫想하고잇다 卽 英海相의 自主的宣言案과 米國側의 唱道하는 安全感의 均等과는 모다 比率主義의 抛棄를 意味하는것이나 모다 前年의 豫備會談時에 提案되엇든것이오 何等 新進展을 보인것은아니다 그리고 右案은 實質的均等을要求한 日本의 提案과 一致되지안는것은 明白하야 日英米의 意見一致가 困難할뿐아니라 歐洲에서 佛伊와의 交涉成立이 困難한 이때에 本會議를 召集하는것은 至難하다라고 보고잇는데 華府條約의 規定에 基하야 一旦 今年內에 本會議를 開催키로 되어잇스므로 十二月頃 形式的으로 日英米佛伊의 五個國會議를 開하야 本會議의 延期를 議決할것으로 豫想되어 外務省으로서는 無條約狀態는 必至라고보고 來八月二日 歸國하는 松平駐英大使의 到着을기다려 根本對策에 對하야 協議할 方針이다

八面鋒

◇
比率主義라는 굴레를 슬그머니 벗더니、太平洋이 좁다고 大競走를 시작.
◇
明年까지 참을것업시 華府條約의 失効를 自他가 認定하는 그야말로 第七感以上。
◇
日本을 攻擊하든 화살로 英國을 쏘기시작햇다고。
◇
伊太利의 轉向이라할가。 東과 西의 利害에 緩急이 잇다할가。
◇
政府에서 據下하는 八年産朝鮮米가 京仁地方으로 一萬石이나 逆移入。
◇
米穀政策은 언지되얏는지、시작간지 三年만에 饑饉구경하는 살의感想이 언더할는지。

舊韓末年 新聞人論落記(上)

今爲己矣·之東徂西

民世學人

×

論落은 顚落的인流落을 意味하는것이니 舊韓當時 景仰할 大部의 新聞人에 對하야 論落의 文字를 부치는것은 至極 未安한일이다 그러나 大部의 諸氏가 모다 時代의 先驅로 그見識과 情熱을 기우리든 念願과意圖가 오로지回天의 大業에 잇섯스니 大局이 飜覆된後 各各敗殘하는 場面을 지난것은 그 後日의 處境과 事業이 혹은 當時보담 뛰어진바 잇더라도 오늘날의 時局에 돌어보아 그 論落인것을 면이지안흘수 업다 이에 新聞人 論落記를쓴다

雲養 金允植氏 漢城旬報의 主要한 關係者이라 그後에도 外部大臣으로 中樞院 議長으로 자못 顯赫한地位에 잇섯고 己未의際에는 子爵을 急히辭하고 時局에對한 長書를 提出하야 利害를論하고 執行을 猶豫하엿더니 壬戌歲로서 京城에서 貧困中에 逝世하엿다. 徐載弼氏 獨立新聞의 創刊者이라 스피어事件에 關되어 米國에건너간後 그再來의 意圖는 實現될새업섯고 「필립·제이슨」으로서 「필라델피아」에 因住하는中이다 己未의際 그 私財를 다해치고 다시 醫師로 勤務中 往年 「하와이」에서 太平洋會議가 열렷슬때 朝鮮人側委員으로 應論을 吐하야 會衆의 머리를 알케하엿다 그는故國訪問을 熱望하고잇노라고 하되 事情이 許치안흠이 한두가지아니다 佐翁尹致昊氏 獨立協會以來 一時 外部協辦 同大臣署理까지 간바잇섯고 光武十年의 大韓自強協會長 隆熙四年의 靑年學友會委員長等을 基督敎靑年會長되기는 前後數次이오 庚戌變局의後 宣川事件에因하야 在獄多年이엇섯다 現下는 一般이 잘 아는바이다 한힌샘周時經氏 獨立新聞에 執筆하든것은 아는者 드믈으나 그以後 朝鮮語學者로 大成하야 目下 「한글」學派의 宗匠으로 되엇고 庚戌의後 甲寅歲의겨울에 逝世하야 多數의 痛惜함을 일으키엇다

×

皇城新聞 創刊當時의 社長 翰西 南宮檍氏 追後로는 敎育 敎化等 民間事業에 盡力하엿고 感한바잇서 基督敎에歸依한後 白首狼髻 靑年과섞기어 讚揚隊에 나오든것이 當時에異彩이엇고 三昨年에는 그 多年努力하든 洪川의 牟谷學校로부터 「無窮花노래」事件에坐하야 老年에入獄하드니 牟谷學校는 公立으로 直時變更되엇고 氏는餘年을 鄕村에서自適하게되엇다。同 石儂柳瑾氏 「皇城新聞」의 記事로 珍奇한 筆禍를입은 逸話를 남겻고 庚戌의變局에는 스스로 悽楚한 新聞廢刊을 斷行하고 某處로부터 돌아오는 巨金을平知하야 當事者로 그淸高함에 嘆케하엿다 後에 大倧敎와光文會事業에 從事하엿고 數個私立學校의 長이더니 己未의際에는 某事件에 暫時干與되엇스나 無事하엿다 東亞日報를 發起하야 그編輯監督의 한분이엇고 辛酉의가을 逝世하엿다。故韋菴張志淵氏。乙巳當時에는 「是日也放聲大哭」의 責任으로 거의筆禍를 입엇섯고 大韓新地誌、萬國事物起原歷史等의 編述과 其他의著書및 史에對한 研究가 만헛고 慶南日報가 地方新聞의 嚆矢로서 隆熙三年十月二十二日 發刊되든 後 一時招聘되엇든바잇섯다 그는 晩年에는 古人所謂 「飮酒放狂」하는 心境을가젓든듯이오 그當時의 「逸士遺事」는 朝鮮近世人物考로서 價値잇고 埋沒된人物들을 闡揚함이 적지안타。雩南李承晩氏 帝國新聞의 主筆當時 萬民共同會 事件으로 投獄되엇든中 某人과內外策應하야 拳銃으로써 脫獄하려하다가 들키어 前後七年 在獄하엿다 獄中에서 執筆한 「獨立精神」이 잇섯고 日露戰中 出獄하매 故參政 江石韓圭卨氏의 紹介로 「씨오도어」 前駐韓使節을 차저 米國에 留學하엿고 庚戌의後 一時歸京하엿다가 다시 北米로갓다 己未以後 極東과 瑞西의間에 往復하는 消息을傳한다。「하와이」 『호놀룰루』가 그生活의本據인양하다 白菴朴殷植氏 庚戌의後 白首로 飄然히 鴨水를건너 北方에서 南京上海에 이르엇고 韓國痛史 安重根傳其他 古代史에 關한 著書및 現代史의 記述이 만헛고 己未前後 大小의 團體와 運動에 千與가 만엇섯다 往年丙寅의 겨울 上海에서 客死하엿다

圍碁 兒島製作所
金儲大王
半えり問屋 井上良商店
ハケ ブラシ 製造販賣 細川ブラシ商店
印刷物經濟化! 太陽卓上石版印刷器 太陽商會
印刷機·斷截機 西村活美堂
食料玩具問屋 錦紫屋商店
コドモ 三輪車 折疊車 自動車 製造直賣 芦田商店
EDO 製本機械材料製造直賣 牧瀨商店大阪本店
◎最新流線型アイスドロップ 已波製作所
ボタン
半エリ問屋 勝本久七商店

녀름옷감으로는 해동저 海東紵와 해동도리마 海東道理麻가 데일 됴습니다 쏙한번 입어보십시오 특별히 권고함니다

京城 金地金分析賣買 金銀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

추탕은 兄弟酒店 京城府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

乳羊分讓(但十頭限) 開城山羊牧場 電話三七六番

旗 カメヤ旗店

포리도-루 레코-드 新民謠 鴛鴦歌 新春 八靑 鮮于一扇

恩給 鄭商會 京城府校洞一六〇

노진 두통 치통에

住宅地分讓
下往十里安靜寺入口◎電車停留場北側
交通至便 ◇ 整地完全 ◇ 位置高潔 ◇ 眼界快闊
詳細事項은 市內公平洞 (水原行) 京水自動車部 電光八一八番 文璟模에게 로問議 하야 주시요

大正館 旅がらす ボレロ 旗本御羽織衆
團成社

上海赤旗團名義 五千圓提供脅迫狀

蓬萊町某富豪運送店으로

"不應則家族을鏖殺"

적색단체의명의로 무시무시한 협박장발송사건두건=지난 이십오일오후 여덟시경 부내봉래정(蓬萊町)일정목에잇는 모부호의 경영하는 운송점에 자주상해적긔단(上海赤旗團)이란 일홈으로 『이달그믐까지 한하고 현금오천원을 부외동막리(東幕里)×××번지 박모(朴某)의집으로가저오되 만약이것을 실행안키나 또는 경찰에 고발하는때는 그대의 집안식구를 오살(鏖殺)할것이다』 라는의미의 몸서리칠만한 협박문 한장이 날러들어왓다。 그래서의외로이러한협박문을 바든전긔 운송점주인은 대경하여 즉시이사실을 소관본정서에 계출햇다。 동서에서는 때가때인데다가 더구나근래에별로업든 적색단체명의의 협박장이므로 즉시이사실을 도경찰부와 검사국에보고하는일방 고천(古川) 서장이 총지휘가되여 서원총출동으로 부내각처에 수사망을 편후방금대활동중인데 적그 협박문구와 긔타여러가지 점으로 종합해보아서 단연해외 적색단체의 행동으로 추단하고 잇다。 그리고동서에서는 범서모단서를 잡어가지고 활동중이므로 수일안에 진범인의 검거를보게되리라한다

"바위미테너허두라" 四百五十圓을

—市內와同文의脅迫狀이—

漣川市場某富豪게도

이와동시에 지난이십삼일 저녁여섯시경 경긔도련천군 미산면아미리(漣川郡嵋山面峨嵋里)존 부호 신신필(申神弼)(六七)의 집에도 별항봉래정 모운송점에들어온것과 마찬가지의 문구를라열한 무서운 협박장이 날러들어왓다 그협박문의 내용은 『이달 스무사흔날 저녁때까지 현금사백오십원을 가지고 련천장(漣川市)으로와서 어떠바위밋테 너허두라 그리고 만약 비가오는경우엔 그돈을병속에 너허서 갓다두라 이것을실행안는때엔 그대의 전가족을 죽일터이다』 의 의미를 가진것으로서 이사는 이를 경긔도경찰부로 급보하는 한편 각처로 수배하여방금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江原、黃海兩道 自動車線大故障

田畓人畜被害도相當

중부조선의 금번 수해로 황해도 각지의 철도불통과 또 강원도의 교통은 가옥피해는 다음과갓다。

一、黃海線泉決、迎陽驛間 五個所線路가 決沒不通되엇는데二十六日頃에 開通될뜻

二、黃海線東海州、塘浦驛間의土砂崩壞로 不通되어 七月末까지나 開通될뜻

이밧게 두곳의 불통개소가 잇섯스나 이십오일에 복구되엇다

그리고 자동차교통은 해주마산간(海州馬山間)재녕사리원간(載寧沙里院間)해주 사리원간(海州沙里院間)해주남천간(海州南川間)해주연백간(海州延白間)이 하천의 범남으로 두절된채 아즉복구의 희망이 보이지아니한다

그다음 이십오일아츰까지 판명된강원도지방의 피해는

▲死亡者二 ▲行方不明二 ▲負傷一 ▲家屋流失六 ▲同倒潰六 ▲同半潰二 ▲浸水七九 등이요 춘천-원주(原州)간의 도로파손은 거급수리로 이십오일부터 자동차가 개통되엇다

강원、황해상도의것은 다음과갓다

▲死者二〇 ▲負傷者一一 ▲行方不明五 ▲家屋倒潰四九 ▲同半潰九二 ▲同流失三〇 ▲同床上浸水一、一〇一 ▲同床下浸水二、五五三

빌딩構內에 私設郵函制

체신국에서는 최근조선안의 주요도시에잇서서 고층 건축물과 〃떼파-트〃등이 만허저감에따라 〃이와가튼 빌딩구내에 우편통을 사설하야 일반우편통과동양으로 우편물의 취집을 희망하는것이 만허짐에 감하야사설우편통제도 실시규정에 일즉부터 조사중이든바드듸여 총독부령제구십호로서 사설우편통규측을발포하야 오는팔월일일부터실시하기로되엿다 그러고 사설우편통설치희망자는 규정에 따라서 당국에 신청하고 그로부은 취치의 회수에 따라서 다음과 가티규정 되엿다

▲하로에 세번이나 취집하는데는 일년에 십이원

▲하로에 두회이내로 취집하는데는 일년에 이십원

▲하로에 일곱번이상 취집하는데는 일년에 삼십원이다

그리고 「빌딩」 안의 노피에 따라서 취집에 요하는 하로의 연행정(延行程)백미돌 마다 일년에 일원이십전을 증수하기로 되엇다

工作會事件 鄭鍾鳴氏等五名出監

親戚知己廿餘名出迎

조선공산당 재건공작회 사건으로 삼년징역의 판결을 밧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 정종명(鄭鍾鳴)리인동(李仁同)김이흥(金二興)김문환(金文煥)리응수(李應洙)등다섯명은 이십륙일 아츰에 만기출옥하엿다 그들의 친척친지들 이십여명은 일즉이 칩부터 형무소 문아페가서 기다리고잇다가 모다들 마중하엿다 허정숙(許貞淑)녀사는 꼿다발을 준비하여 가지고 잇다가 정종명녀사가 출감하자마자 손에 쥐여주엇스며 그밧게정칠성(丁七星)우봉운(禹鳳雲)박호진(朴昊辰)등제씨는 서로끄러안고 기쁨에 넘치서 눈물을 흘리는등으로 한바탕 극적장면을 연출하엿다

정종명녀사는 얼골은 조금 여위엇스나 그래도 원기가 잇서 보엿다 다른 네명은 각기 자기집 혹은친척의 집으로 갓고 정씨는 시내수표정(水標町)사십이번지 서정히(徐廷禧)씨댁으로 가서 정양중이다(사진정종명씨)

楚山郡對岸에서 土兵이放火頻頻

【楚山】 평북초산군 신도장(平北楚山郡新島場)대안인 관전현 냉수천자(冷水泉子)부락에 지난이십이일 백주에 수명미상한 토병십이명이 습래하야 그동리 만주국인의가옥다섯채에 불을지르고 전소를식힌후 각각그뒤산으로 은신한모양인데 관계당국에서는 추격중이라는바 토병의습래가 빈번함을따라 재산을가진 만주국인으로서 압록강을건너 조선땅으로 피난오는사람이 뒤를니여 계속된다고한다

十五道溝에서 同胞卅二名拉去

食糧을徵發掠奪하는同時에

栽培阿片을沒收

【咸興】 십사、오도구 (十四、五道溝) 벌지에 잠거하고잇든 련합토병단 쌍성(雙城)의 인솔한 일대삼십여명은 작이십삼일밤열한시경 십오도구상대동 (十五道溝上大洞)에 출현하여 만주인、조선인농호에서 맥분삼십포、좁쌀오두여를 강탈하고 인질로서 이주동포등 장모(張某)외 삼십일명을 붓드러갓다고하며 이십삼일오후세시경 십삼도구사두방자(十三道溝四頭房子)에약사백여명의 토병단이이동하여 왓는데 동지방은 작금 목재계의호황으로수개소에 벌재급운재사업을개시한고로 상당한물자가잇울것을 예상하고 습래한것인듯한데 목하혜산경찰서와 대안십삼도구경찰서에서는서원 총동원으로강안지대를 엄중경계중이며 십삼도구 대북두리 (十三道溝大北斗里)에문명군(文明軍)의 일대 삼십여명 십오도구(十五道溝)에는 삼십여명 토병 백여명이 잠거하여목하수확중의아편(阿片)을강탈중에잇는데 동지일대는 아편재배로호구하여가는 주민이다대수인 마큼 이와가튼 토병들의 무시출몰피탈에 인심은극도로동요되고잇다

囚人五百과合勢 再次襲擊을畫策

目標는日本人慘殺인것이判明

奈曼旗襲擊事件後報

【電通新京二十五日】 외몽고、흥안、남성(外蒙古興安南城)경비군 구완선발대의 보고에의하면 토병단이 나만기공서(奈曼旗公署)를 습격하야 방화한후에 기공서소유의 경찰관복을 략탈하야 닙고 수인(囚人)오백사십명을석방하야 합류를식혀 민가를 점령하고 종래로 불온한 형세를 가젓든 주민들을 항복식혀 방금토병단은 팔백여명으로 증가하엿다 따라서 재차습격을 계획하는모양으로 일본계종직원과 가족의생명은 여망이업다고한다 흥안남성 경비군의 선발대는 토병과맛나 교전하엿스나 이전투에서 전사자한명 부상자한명을 내엇다 토병들는방금 의장한거향을 시험하고잇는모양으로 구완본대의 도착을기두리는수밧게 업다고한다

【電通新京廿五日發】 만주국 몽정부(蒙政部)오후네시의 공보에의하면 나만기공서 습격사건은 일본인참살을 목적한것이 명료한바 기타는현지로부터 속보가업기때문에 회중을 어들수업스나 이지방형세는대개다음과갓다

一、흥안、남서방성의경비구와대는 방금팔선동(八仙洞)을향하야진격중

一、나만기장(奈曼旗長)은 나만왕부(王府)부근에서 자위단〇〇을조직중으로 팔선 팔회(蘇回)에 분주중

一、비적단은 팔선동을 중심으로 자동차도로를 파괴하고산병호(散兵壕)를 구축하야 방어진을 만들고 토벌군을완강히저항코저 하고잇다

枕木을拔取 軌條를除去

綏濱線에土兵團이

【哈爾賓廿五日發聯合】 이십오일 오전세시부터 여섯시까지 빈유선(濱綏線)하르빈역 기점 백사십키로 백모자(白帽子)부근에서 레-루 두개와 침목(枕木)마흔다섯개를 허러내인것을 선구렬차가 발견하고 위험은 미연에 면하엿는바 이급보를 접한 모자산 수비대와 공무단(工務團)과 경무단(警務團)은 현장으로 급행하야 조사한결과 이밧게도 전주여섯개를 뿌리채뽑아버리고 계획적으로 렬차전복을계획한것으로 판명하엿다 이것은 공산군 조상지(趙尙志)부하의 소행으로모자산 수비병은 남방으로 도주한 토병단을 방금추격중인데 현장은 공무단원의 로력으로 오전여섯시에 무사복구하엿다

裡里納凉大會

【裡里】 리리 남양대회(裡里納凉大會)는 오는 이십팔일부터 리리운경광장에서 개최하리라는데 푸로크람은 『조선씨름』한성관 (漢城館) 영남관(嶺南館) 예기의 가무(歌舞)등을 비롯하야 상당히 흥미잇는 설비를 하엿슴으로더위에 시달리는 여름의밤을 이화락경으로 인하야 리리이만흔민은 다소위안이 되리라고 한다

一、二百卅七府郡島에 視學을一齊配置

國庫補助二十七萬圓豫算查定도完了

初等教育界廓淸을目標로

학무국에서는 명년도에 경긔도이외의 십이도각부군도 (府郡島)에 시학을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관한 국고보조이십칠만원을명년도예산에 요구하엿든바 정무총감의 제일회사정도 통과되야 명년부터는 이미작년부터 신설된 경긔도의부군시학관과합하야 전조선이백삼십칠 부군도에일제히 시학(視學)을 특설하게결정하엿다한다 현재각도별로 보면 보통학교 간이학교 기타 사립 초등학교등 상당히 수가 만흔터이나 시학기관 으로는겨우 도에 오륙인이 잇서 때때로 출장하야 감독시찰함에 끄치는 관계로 초등교육의 감독이 불철저하야 초등 교육계에 불상사를 이르키는 일이 매우 만엇섯다

그럼으로 학무국에서는 명년도에 완성되는 일면일교 계획과 간이학교의 증설 또는제이차 초등교육의 확장 계획을압두고 부군도를 단위로 시학을 한명 또는 두명씩배치하야 교육긔관의 확충에 만흔 감독의 철저를 긔하게 되엇다한다

宗教統制를前提 總督府에宗教課를新設

豫算査定도이미完了

총독부에서는 농촌진흥운동의전면적확충과아울러 심전(心田)개발운동이라하야 종교의 부흥과 통제책을 강구하야 그간관계자간의 회합도 수차잇섯든바 명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교의통제를 단행하야 현재 쇠퇴하여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행정의 통일적 확립을 도모하고저 현재사회과안에 한계(係)로남어잇는 종교행정을 사회과에서 떼어다가 학무국안에 새로 종교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예산을 요구하엿든바 제일차 정무총감의 예산사정에 륙만삼천원이 통과되얏다

渡船이轉覆 面長、巡査失踪

八名中에五名救助

경기도양주군와부면 (楊州郡瓦阜面)면장 정규홍(丁奎泓)씨와 면기수 임중(任重)씨와 동주재소 등전청남(藤田淸男)순사부장등 일행 여덟명은 이십사일이래 북한강의 수해조사중에 동면조안리(鳥安里)도선으로 대안인 호곡리(戶谷里)로 향하든 도중에 이십오일 오후일곱시삼십분경에 도선이 격류로 말미암아 전복되며 승객팔명중에 다섯명은 구조를 바덧스나 전기세명은 격류로 말미암아 하류로 떠내려가 행위불명이된 이래 극력수사중이나 이십륙일 오전아홉시까지 판명되지못하엿다고 한다

天氣豫報

曇 驟雨

半島의 氣壓配置는 아즉 雨期狀態를 脫出치못하고 本州의 高氣壓도 末端이 南朝鮮으로부터 西岸으로 突出하고 잇다 弱低氣壓은 北滿과 天津附近에 잇다 南滿州는 雨 北朝鮮은 曇、北東岸은濃霧가잇서 南朝鮮과 日本은 晴曇不定이다 颱風이 小笠原島附近으로부터 멀리 南海上에잇스나 詳細는 不明이다

昨日最高 三三、六 最低 二一、八

今日正午 二八、二

運動競技欄

全日本對全京城 軟式庭球對抗戰

來月三、四日京城運動場코-트서

兩軍의陣容을決定

軟式庭球界의 王座 全京城軍은 全日本選拔軍을 마지하야 來八月三、四兩日間 午後三時부터 壯快한 京城運動場코-트에서 空前의 庭球對抗戰이 열리게되엿다 이에 出戰할 兩軍의 陣容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스며 全日本軍은 名實共히 日本의優秀選手를 總網羅하야 雪辱의 意氣가 充溢하고잇서 자못興味잇는 熱戰을 展開할것으로 豫想되다

一行은 來八月二日午前三時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하야 黃金町後屋旅館에 投宿할豫定이라한다

◇全日本選拔軍

札幌鐵道(川端、石川) 名古屋鐵道(安井、山名)

大阪鐵道(津谷、藤原) 愛知縣(門屋、安藤)

仙台鐵道(山邊、魚津) 大阪鐵道(嵯峨、伊藤)

東鐵金俱(岩崎、日向) 外補欠一組

◇全京城選拔軍

總府鐵道(熊野御堂、鄭士連) 總府鐵道(敬秉律、武邊)

殖銀(洪承武、朴龍善) 殖銀(崔永生、魯炳熙)

商銀延專(吉川、權碩仁) 專賣(白潤輔、李正王)

殖銀(藤原、李鍾颯) 專賣局(黃基成、李顯麟)

府選商銀(金東赫、李一雨) 總府遞信(小川、孫觀星)

鐵道朝銀(黃河秀、中川)

滿洲遠征의 普專連勝

新京서六對一로

【新京】 滿洲遠征中의 普專蹴球部一行은 지난二十二日 午後二時에 新京에 到着하야 在留同胞의 熱烈한 歡迎裡에 新京에 到着하야 翌二十三日午後四時 五分부터 西公園球場에서 新京朝鮮人 青年會軍과의 歡迎蹴球戰은 友納(主)、金光海、崔貞煥(線)三氏 審判아래 開始된바 前半은 三對一、後半엔 三對零의 큰差로 普專軍悠悠히 勝捷하엿는데 二十四日에는 全新京軍과 對戰키로되엿다

	【新京】	【普專】
GK	宋基字	李相再
RF	安喆政	朴卜禎
LF	崔玟二	洪燦永
RH	鄭華澤	金炳禕
CH	金基命	金容植
LH	吳成煥	李錫漢
RW	金允興	李昊濟
RI	朴基大	朱弘列
CF	任玄宋	高鴻竟
LI	金熙德	裴宗鎬
LW	金輔國	文二峰

YMCA學校籠球 開城沙里院서

六戰五勝의好成績

方今西朝鮮地方에 轉戰中에 잇는 中央基督教青年會學校 籠球部遠征團一行은 지난 二十二日에 開城에 到着하야 松都高普宮內『코-트』에서 當地各팀과 應戰하야 四戰三勝一敗하고 二十三日에는 沙里院에서 二戰二勝한바 二十六七兩日에는 平壤에서 試合할터이라는데 現在까지의 戰績은 다음과 가티 六戰五勝一敗이라한다

◇開城

(第一回戰)

青學53…48開城籠友

青學40…46全松高普

(第二回戰)

青學59…34開城籠友

青學55…27全松高普

◇沙里院

青學54…41沙里院籠球團

青學63…24當地農業

中等水上競技大會

京城帝大主催의 全朝鮮中等水上競技大會는 來八月三、四兩日間 京城運動場풀에서行할터이라한다

中等野球豫選

【平壤】 大朝主催中等野球朝鮮西北部 豫選 第二日(準決勝戰)은 雨天으로 延期中이든바 二十五日 午後一時十五分부터 平壤公設球場에서 行한바 平壤高普 新義州商業이 各勝하여 決勝케 되엿는데 이날의戰績은다음과갓다

平高9A 海高6

平壤高普對 海州高普戰은 同午後一時十五分부터 松本(球)倉田、熊谷、宗石(壘)四氏審判아래 海高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九A對六으로 平高勝 閉戰 三時三十分

平高	3	0	0	3	0	1	2	0	A
海高	2	0	0	0	1	0	3	0	0

6—9A

▲投捕 平高(宋學朱—車南俊) 海高(洪晩植—林在明)

新商4A 鎭商2

新義州商業對鎭南浦商工戰은 同午後四時十五分부터 小西(球)態代、田中、吉田(壘)四氏審判아래 鎭商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A對二로新商勝 閉戰六時二十五分

鎭商	0	1	0	0	0	1	0	0	0
新商	0	0	0	0	3	0	1	0	A

2—4A

湖南豫選經過

裡農4A 光中3

【大田】 裡里農林對 光州中學戰은 廿四日 午前十時十五分부터 大田鐵道球場에서 光州先攻으로 開始한바 三對三으로延長戰에드러가 四對三의스코어로 裡農勝

大中17 靑高5

大田中學對淸州高普의 第一回戰은 同午後一時十九分부터 大中先攻으로開始한바 十七對五로大田勝

大中	4	0	3	0	3	7	0
淸州	2	0	0	0	0	3	0

5—17

光高3 木商2

光州高普對 木浦商業準決勝戰은 同午後四時부터 光高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三對二로 光州高普가 勝하야 大田中學과 決勝戰에對時케 되엿다

光高	0	0	0	0	0	0	0	0	3
木浦	0	0	0	0	0	0	0	0	2

2—3

大中5 裡農2

大田中學對裡里農業의 準決勝戰은 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行한바結局五對二로大田中學이 이겻다

獨逸카토릭敎徒迫害 米國體育協會長憤慨

【紐育二十五日發聯合】 獨逸國內의 카토릭教徒迫害에 米國體育協會長「마호니」氏는 極度로 憤慨하야 伯林에 열리는 第十一回「올림픽」大會 不出場도 不辭한다는 決意를 披瀝하엿다

京城府鐘路一丁目六十番地

絹布商

金熙俊商店

電話光化門 長七五八 一二二八番

營業目錄

書籍 文具 出版 印刷 帳簿 製本

京城府堅志洞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長光化門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發信略號「도서」「トショ」

オフセット プロセス 高級印刷

寶晉齋

京城府貫鐵洞一二七番

電話光化門五七〇番

傑作盤

流行歌 情恨의버들 (八一四三)

新民謠 草露夢

新傾向 봄타령

넌센쓰 밤車 (八一三四)

太平蓄音器株式會社

朝鮮文藝部員一同

太平레코-드朝鮮賣捌元

テーオ商會員一同

家庭婦人

애기들은 함부로 박게 놀리지 말일

놀자리 정해노코 각금 돌보시요

=경계할거리의 악한=

작년에 어떤 집 사월 ○○공원에서 동무들과 놀고잇든 어린색시 하나가 엇던자에게 속아서 세사간동안 여고저고 끌려다니다가 다행히 그자의손을 버서나서 집으로 돌아왓다고합니다. 아즉 그자를 붓잡지 못한만큼 그 범행의 동긔가 과연 어데잇섯다는 것은 잘아지못하나 자녀를 가진부모들로서는 다함께 놀라운일이요 다함께징계할일이 아닐까고생각합니다

본래 아기네들을 혼자 행길人까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그다지 안전한 방법이 아니올시다. 설사 피여 가지고 내혜는 악한이 업다고 하더라도 예라고 조심될일이올시다. 그런데다가 녀자아기네들은 **남자애기네와도** 달러서 요새가티 인심이 사나운 세상에 피여다가 팔아먹지 말란법도 업습니다. 더구나 다 커가는 색시들은 어린애기와도 달러서 별별사람이 다살고잇는 이세상에 피여다가 욕을 뵈이지 말란 법도 업습니다. 하여튼 자녀들을 행길人가로 혼자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시는것이 제일 조슴니다. 정 내보내게되거든 어른이 딸아 나오시도록 해주서야 합니다.

×

그러나 조그만 **집안 구석에다가** 어떠케 자녀들을 가두어 두고 기를수가 잇스며 또 우리네살림으로 어떠케 자녀들이 행人길에 나올때마다 뒤조차 다닐수가 잇겟습니까? 그야 무리한 주문이 아니겟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정도까지만 신칙하는수 박게 업고 미리부터 애기네를 주의를 시켜두시는것이 해롭지 안할듯 합니다. 가령 낫모르는 사람이 먹을것을 사주마고 오라더라도 딸아가지말라는 등 친치못한사람이 **구경시켜준다고** 꾀더라도 뒤쪼차나서지말라는 등 주의를 해두시는 그만큼 애기들도 다소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더구나 여나무살이 넘어 물들을 헤아릴만한 나히에야 그러케 일러만 둔다면 고만이아니겟습니까? 공연히 딴일을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나물하시거나 꾸중하시면서도 이러케 [illegible] 한 일은 조금도 일러두시지 안는 모양이니 부모된분의 책임이 과연 어데 잇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더운 녀름날 **분동가든 젊은방**에서 애기네들이 드리 뛰고뎀비니까 귀찬코 성가시다고해서 박게 나가 놀지 안는다고 걱정을 하시는것까지는 좀 섭한 일입니다. 집안에서 놀다가 부모의 걱정을 듯고보니 애기네들은 위험한지 어떤지도 하지 못하고 행길人가로 싸지를수바게 업습니다 그러나 거기라고 애기네의 노리를 위해서 조흔 마당이 잇습니까? 점차 자동차의 위험이나 부랑아동의 폐입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때로는 **악한의 검은손이** 노려보고 잇습니다 밧거나가놀라고 하더라도 집가까운곳에나 나가놀도록해야 합니다 될수잇스면 거긔도 교통상 위험치안코 부랑아동이 별로오지안코 또이웃사람들의왕래가 자저떤일이업슬만한 장소를아조 지정해주도록해야 합니다 그러고 아모리 구떠에 싸히어 바뿌고 또바쁘더라도 가끔그장소에 들리어서 애기네가 잘노나 안노나를 보아주십시요. 어데가서 놀거나 말거나 신지무의하고 제멋대로 어떠케돌거나 관심하지안는 습관을 버리서야합니다

料理 가정부인에게는 이런것도 아라둘일

찬밥을 쪄먹을때 ―밥을 찌면 물끼가 번지레해저서 자미가업는데 이런경우에는 갓쪄낸 밥우에 마른보재기를 씨우고 뚜겅을 꽉덥허 잠시동안두면 물끼가 쪽 빠저 맛잇게 먹을수잇습니다

◇

마늘이 여러가지 병에 약이되고 또 사람몸에 퍽조흔것이 요건래에 와서 증명되엿다하야 너도나도 하고 만히 먹게되엿는데 한가지때는 냄새가 몹시나는것입니다. 마늘을먹고 이냄새를안나게하자면 국화꽃을 웅달에 말려두엇다가 마늘을먹은뒤에 조곰식 질겅질겅 씹으면 냄새가안내게됩니다.

◇

쥐란놈은 돗에치우면 그 돗에 무슨내음새가 나는모양입니다(?)그래 그런지 쥐가 한번걸려든 돗에는 다른쥐가 좀처럼안걸립니다. 그래서 쥐가걸린뒤에 신문지를태워서 쥐냄새를 업새기도합니다만 그보다는 쥐돗속에 조고마한거울을 세워노아 취란놈이 보고 동무가 잇는줄알고 쪼차들게하는법이 신통한 법입니다.

여름타는데

―몸이 노곤하고 소화잘안되는때―

비타민빼든음식

여름에 몸이 건강치 못하고 또 보통때보다 살이 나린다는 것은 결국 여름 더위에 그몸이 견딜수 업다는것과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름이란 게절은 일년에 한번식 오는것이니 이를 [illegible] 업스므로 여름철은 몸을 든든히 하는것밧게 업슬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야 여름철에 이 더위를 막고 편히 지내일수가 잇습니까?를 알어봅시다

×

위선 비타민B가 만히든 음식을 잡수시오 그러면 체내의당분(糖分)을 만히 쓰게 되는데 필요함으로 그결과로 지방의 침착을 잘식히는동시 몸전체의 세포가 생생하게됩니다 그러므로 느른한긔분이라거나 호리던분한맛이적어지고 또다리의 피곤을고칠수잇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B를섭취하려면 무엇이조혼가? 이것은 쌀에제일만습니다 그러나쌀에도 특히외피(外皮)가 만히붓흔것이 조흡니다 그러므로현미(玄米)가 조흔데 여름철세가계속되면 현미도 빠ー라 [illegible] 그러므로 현미이외로 「비타민B」가 만흔것으로 내면 시근치 양배추(카베즈) 일번갑 먹는 「닌징」 장주가튼것입니다 이것은 갈도차고 또우리조선 사람이 흔히 먹는것인데 이것을되도록 만히잡수시고 몸을 놀정히 씻습시오 그리하야 위장을 상하지안케하십시오 이것이 여름보건에 가장 중요한방책의하나입니다

家庭醫學

손목이 가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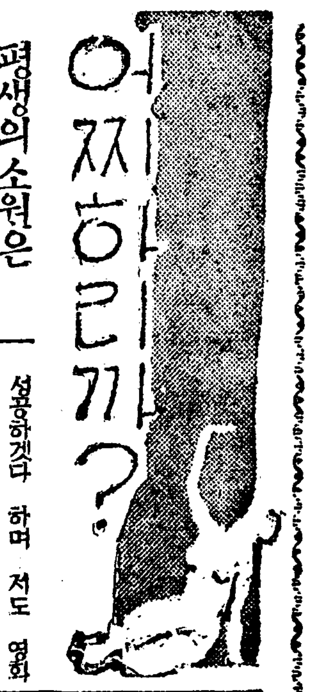
問 저는 금년 십구세된 녀자이온대 손목이 특별히 가늘어서 보기가 퍽 실습니다. 듯는바에의하면 의학게에서 국부비대법이 잇다하오나 어떤병원에서 그런것을 합니까 (咸州 一讀者)

答 손목을 크게하는것은 병원에서는 할수가업스니 가정에서 매일 운동을 하도록 해보십시요 (大學病院 [illegible]科 金[illegible])

임신부터분만까지

問 임신이된날부터 분만까지 가며칠이나됩니까. 그례를 들으면 정월이십팔일에 임신이되얏다고하면 어느날에 분만이되겟습니까. (市內 一讀者)

答 임신이된날부터 분만까지의일수는 어떠케잡던 내지이백칠십일가량입니다. 그러나 보통임신이 된날을아려 내기가 어려운것임으로 최종월경을 가지고 다음과가티 계산하야분만예정을 추어냅니다. 즉 최종월경을입어가지고 거긔에서 삼개월을감하거나 흑은거긔에다 구개월을 가하고 칠일을 가하야 분만예정일로 합니다. 지금 당신의 례를 들어서 계산해봅시다. 최종월경이 정월이십팔일이니까 거긔에 칠일을 가하면 다음해 [illegible] 예정분만일이 됩니다. 그러나 어와가티 계산한 날자에 꼭 분만을 하느냐하면 결코 그러치 안코 그날자를전후하야 분만이 되는것입니다.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錫[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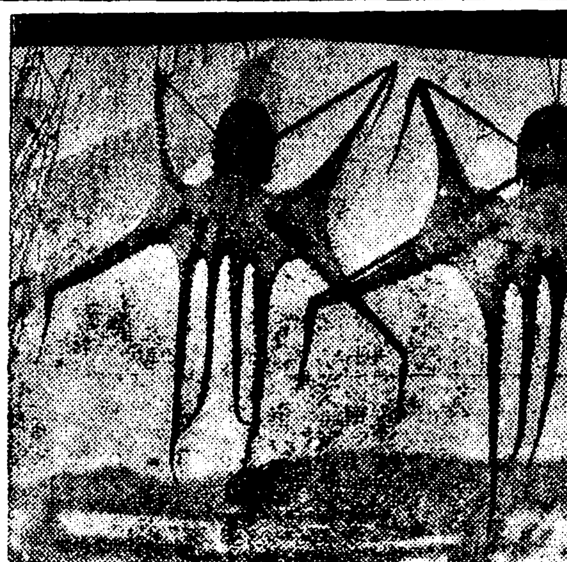


평생의소원은 영화배우되기

問 저는 금년에 스무살된 처녀 입니다. 어려서부터 활동사진을 조아하야 녀고보를 마친오늘에도 영화에 대한 취미를 끈흘수 업습니다. 그래서 기회잇는 대로 영화잡지며 영화에 관한 책을 읽고 연구하는중입니다. 자랑갓습니다만 저의 얼골과체격이 비교적 균형미가잇고 동무들도 영화게로 나스면 성공하겟다 하며 저도 영화배우되기를 벌서부터 희망하고 잇습니다. 현재에 가진학식과 년령으로 영화배우가되자면 될수잇습니까. 부모님이 완고하신지라 그분들께는 저의마음속을 감히사뢰지못하고 옵바에게 의론한즉 대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옵바친구되는분과 약혼말이 나서 거이결정이 되게되엿는데 그분은문분이라 저의마음에 부족하지는 안습니다. 애초의 먹은마음을 꾸어뚤키위하야 결혼문제는 장래로 밀고 영화게로 나서 볼까요. 집안사람이 반대할것은 각오합니다만 그런것을 두려게 생각한다면 성공할수업겟지요 그래지말고 옵바의말대로 결혼을하야 가정부인이 되여버릴까요 그러라면 저의 희망이 깨여지고 사는것이 무의미해질것갓습니다. 엇지하리까 (上川杜○례)

결혼하신다음 남편과상의하오

答 영화배우가 납부다는 것은 아니나 화려한 영화면만 보고 그들의 생활을 동경한다는것은 큰 잘못입니다. 더구나 조선과 가티 영화계가 성숙한 곳에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한층더 큰고통이 생활리면에 숨어잇습니다. 당신이 인물 조흔것을 가지고 영화배우 자격의 큰조건으로 말하니말이지 인물이조라고 밥벗이 훌륭한 영화배우가될수잇는것은 아닙니다. 미인이요 미남자가 곳예술가는 아닙니다. 못생긴 체모를 가젓드라도 예술가의 소질이 잇서야 예술이 생겨날것입니다. 당신에게 설사 소질이 잇다 치드래도 조선안에서는 영화에대하야 연구할만한 곳이업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형편입니다. 현재에 결혼 말이 잇고 상대자가 당신의 마음에 든다고하니 차라리 이길을 취하시는것이 조치안을까요. 배우노릇하기가 그다지 소원이시라면 결혼하야 가정을 이룬후 남편과의론 해서 하서도 조흡니다 문학을 하시는분이라니까 당신의 하고자 하는일에 다소리해가 잇슬지도모릅니다. 엇쨋든 남편의지도를바터 그길로 나가보십시요.



낙지의 서름 이악형고려 피문어가되여 사람의 입으로

日曆

七月廿七日 (土) 陰六月二十七日

甲辰·火·氐·收

祭祀·嫁娶·移徙·裁衣·上樑辰時 納財·安葬에吉함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라디오

二十六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管絃樂 一、幻想舞曲…레이나ー드作曲 二、여름저녁…발드토이펠作曲 三、카프리치오…토도니作曲 DK管絃團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여름과캠프生活(一) 李亨雨

◇同八時 講話 開城土俗(一) 松都高普 李瑄根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黃鷄詞 金水晶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古談 二八新婦五十郞 金錫九

◇同九時三〇分 [illegible]獨奏 洪志裕

二十七日(土曜)

카와하와이音樂 佐藤秀郞 사잔크로스카레지안스

◇同二時 美術講座 繪畫의鑑賞(二) 李承萬

◇同六時三〇分 童話 강아지가 된수복이 鄭奎浣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八時 講話 開城土俗(二) 松都高普 李瑄根

◇同八時三〇分 兒童劇 少年西遊記 全二景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

▲어린이와家庭의밤

◇同九時五分 明笛獨奏 一、아츰 二、옵바생각 三、荒城의달 四、會友 五、夜想曲 鄭德淵 伴奏 金吉洪

◇同九時二〇分 별별풍내 石泉

◇同九時三〇分 獨唱과피아노獨奏 一、獨唱 [illegible] 二、피아노獨奏 [illegible] 獨唱 李相徹 피아노伴奏 金今順

二十八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流行歌 (레코드音樂)

輕音樂의午後

◇同一時二〇分 (大)吹奏樂 一、行進曲『親友』…타이케作曲 二、波瀾風舞曲…샤르뻬카作曲 三、序曲『마드릿든의 여름밤의追憶』…글링카作曲

◇同二時一〇分 앗코ー듸온獨奏 一、椰子樹의달…鈴木靜一原作 二、아리랑夜曲…同 三、다시맛날때까지…佐佐木俊一原作 四、波濤를넘어서…로ー자스作曲 五、그룹, 그거리…佐佐木俊一原作 듀프ー르編曲 六、그대와[illegible]…듀프ー르編曲 七、女子青年의[illegible]…가르드니作曲 大阪市音樂隊 指揮 林亘 모리스듀프ー르

◇同六時三〇分 [illegible] 關坡

人達는海에잇다 [illegible] 任東[illegible]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湖南歌 二、唱劇調 林芳蔚 鼓手 韓成俊

―빠하名曲國際放送―

◇同二時二五分 東京으로부터

◇同八時三〇分 獨逸로부터 遁走曲技術(요한·세바스챤·빠하作曲) 聖트강·그레·체르編 曲 오ー간 헤르바르트·콜마 첼바로 윌라·벨라 프리ー드벨드·샤라 라이프치히交響樂團 指揮 한스·와이쓰빠하

◇同九時 東京으로부터

◇同九時一分 雅樂 靈山會像 玄琴·李彦禮 洋琴·李承煥 笒·池龍九 短簫·洪斗惠 細笛·[illegible] 杖鼓·李壽夏

◇同九時三〇分 피아노獨奏와獨唱 一、피아노獨奏 暴風雨…헬리·워ー버作曲 二、獨唱(가) 날부르는소리…파레作曲 (나) 一生의哀愁…멘델스존作曲 (다) 노래하는行人…쿄매드리作曲 三、피아노獨奏 新春…웨ー버作曲 四、獨唱 (가)언제나만나리가…허ー버트·존슨作曲 (나)도라감내故鄕…[illegible]作曲

短篇小說 만무방 (10)

金裕貞 作　安碩柱 畫

웅칠이는 공동묘지의 첫고개를 넘엇다. 그리고 다음고개의 마루터를 올라섯슬때 다리가 주춤하엿다. 저 외편 놉흔 산고랑에서 불이 반짝하다 꺼진다. 즘생불로는 너머 호리고ー아ー하, 이놈들이 [illegible] 그는 가든 길을 [illegible] 들더둥 나무가지를 집프며 산으로 올라탄다. 바위는 미끄리어 나리며 발등을 찟는다. 딸기까시에 종아리는 따겁고 엉금엉금 기어서 바위를 끼고 감도랏다. 산골짝이에 바위와 바위 사이 [illegible] 가 [illegible] 굴이 잇다. 풀들은 뺑치어 굴문을 만든다.

그속에 들러안저서 다섯놈이 머리들을 맛대고 수군거린다. 물빗치 샐가 염여다. 람포불을 야치 달아노코 몸들을 바싹바싹여미어 가리운다.

『어서 후딱후딱 처, 갑갑해서 온ー』

『어번엔 누가빠지나?』

『이사람이지 [illegible]』

『다시 섞거, 어서 이따위 작이야』

하고 한놈이 끝을 내이고 화토를 빼앗서 제손으로 섯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버썩 대드는 웅칠이를 벙벙히 치어다보며 얼떨한다.

그들은 웅칠이가 오는것을 암고처히 실혀하는 눈치이엇다. 이런 애송이 노름판에 웅칠이를 드렷다는 맥을 못출것이다. 속으로는 되우 [illegible] 건드림은 더욱 조치 [illegible] 그럿다고 웅칠이 [illegible]

『아, 웅칠이가 어서 들어오게』

하고 선웃음을 치는 놈에 『[illegible]을 반하게, 자별 기다렷지』 하며 어수대는 놈

『하여튼 한게 떠보세』

이놈들은 손을 잡아드리며 석들 환영이엇다.

웅칠이는 그속으로 들어서며 무서운 눈으로 좌중을 한번 훌터보앗다.

그런데 재성이도 그틈에 끼어 잇는것이 아닌가. 사날전만해도 웅칠이더러 먹을 량식이 업스니 돈좀 취하라든 놈이. 의심이 부썩 일엇다. 도적이란 흔히 이런 노름판에서씨가 퍼진다. 고엽통으로 기호도 안젓다. 이놈은 몇칠전 제게집을 팔앗다. 그돈으로 영동가서 장사를 하겟다든 놈이 노름을하다 제 [illegible] 에 몸이 달하다. 시키는 부역도 안나온다고 동리에서 손두를 마즌 놈이다. 그리고 남의집 머슴녀석. 뽕을 내이고 멋업시 점잔을 피우는 중늙으니 상투쟁이. 이물건은 어서 날라왓는지 보도못하든 놈이다. 체 [illegible] 것들이 웅한다구ー

웅칠이는 기호의 등을 쿡찍어가지고 박그로 나왓다. 외딴곳으로 데리고 와서

『자네 돈좀 업겟나?』

하고 돌아스다가

『웬걸 돈이 어디……』

눈치만 남고 어름어름하니

『안해와 갈렷다지, 그돈 다뭐햇나?』

『아 이사람아 빗갑힛지ー』

기호는 눈을 나려깔며 매우 [illegible] 양이다

新日本의傑作品

그洒格은舶來品의 뻴은씽ー미싱과同一

約半値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國產 蛇目미싱을

新日本의傑作品
國產 蛇目미싱은 故로모든部分品도 世界到處에서隨意로살수잇습니다 特히我社東京, 大阪兩工場에서年產數는巨額에達하고從業人員은四百名今也自他가共認하는東洋一의미싱製造會社가되어잇습니다.

優秀 國產品으로特히廉價ー미싱과同一하고價格은外國品의約半額이되는것도國產인때문입니다. 지금은『차고도르를하다』는評判을어더海外各國으로더러더러輸出되는國產미싱의最高位를占하고잇습니다.

全鮮進出을爲하야 一郡一店의代理店을 急募함

本社 는自他가共認하는東洋一의미싱會社어오그事業은益히將來性이만흔것입니다. 따一個의事業을計劃하는경우에提携할것은最良의相對者가아니면안됩니다

本社는 午前六時事業의先導에서서『明日이잇는會社』로그最適任이나貴下의期待에十二分으로相副할것임을確信하는바입니다.

늘어가는것과 提携하시라

代理 店은本社의出先代表者인故로本社에서는今回全鮮의各地에區域을制定하야代理店을募集함에際하야도[illegible]에身命을다하야長久히提携하실가를約束할수잇는眞摯한分을要求합니다.

希望하시는販賣區域

一郡 에一店에限함으로希望區域을申込하시면年賣上豫定數及特定價格詳細히回答하겟읍니다 代理店希望者는大阪支社營業部代理店係로

東京·大阪
國產パインミシン株式會社
全鮮總代理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illegible]商會京城支店

春陽

慶北春陽邑 實業家 金[illegible]

春陽邑 有志 [illegible]經

慶北春陽邑 實業家 金錫根

春陽邑 有志 姜[illegible]元

慶北春陽邑 道議員 李鍾震

陽化

陽化驛長 金冕鎬

陽化面事務所

陽化公立普通學校

咸南陽化市 尹泰

咸鏡線陽化驛前 李允性

陽化海水浴場

陽化郵便所 所長 李芭[illegible]

咸鏡線陽化驛前 三井長三郞商店

咸南陽化市 金英周

千代屋貿易商 李雄在商店

咸鏡線陽化驛前 東興旅館 主 金性圭

[illegible] 普通學[illegible]

咸鏡線陽化驛前 李年河

[illegible]

咸

一般參考分析 賣鑛試料分析 鑛務所全般
咸興府黃金町一丁目
咸興分析[illegible]

學藝

出版界에對한提言
局外의一學徒로서 ⑤
李軒求

出版文化의 意義가 오로지 外國의 古典文化 輸入과 自國文化遺產의 集大成과가튼 博物館的 役割만에 始終한다면 거기에는 一의時代的 生命이 缺如되어 잇는것이다 모든 文化가 그러한과가티

[人間]=生活은 過去의 追慕와 反撥이 을 通해 現代文化의 새로운生活을 開拓하기 爲함이라는 곳에 그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이란 이 貧困한 地帶에 오늘에 새文化建設을爲하야 內外로 바터드림비文化의總決算 綜合으로 우리의 生命잇는文化의 光彩를 完全한 結實에 일으키게 하라는所以다。

昨今 오늘의 文學界를 一瞥한다고하자 여기文學에 企待를 가지는者 또 直接文學生産에從事하는者의 共通된希望이란 좀더 훌륭한作品 作家의出現에 잇는것이다 그러타면 作家의새로운出現 乃至그作品의浸透를爲하야는어떠한 方途를 죄하여야할 것인가? 오늘의 出版現象으로 보아서 小說을 一例로 들자면 朝鮮의 小說은 日本의 直接影響을 힘입어 新聞小說에 牛耳를 잡히고잇다 그러나 그

[影響]은 一面的이여서 다른 出版이 敍行하고 또 販賣함으로써 讀者嗜好性의 滿足만에 끈치지 안코잇는 日本出版界의 影響과는 別個의 事實로 進行되어왓다.

이러케되는 內面에는 朝鮮서 出版하려고들면 實로 無限한 文化遺産의 書庫가 잇는데다가 現代作家의 作品만을 出版하기에는 그 作品이 저-널리즘的意味로 或히 新聞이나 雜誌의一部를 채이는 程度에 끈칠것이오 實로 한個의 出版物로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도 낫게評價되다는 文學的意味, 또는 商業的打算에서 結果되는것도 吾人은 認識못함이 아니다.

그러나 더나아가 吾人이 出版事業의 劃期的 行動을 要求하는 一面에는 實로 現在朝鮮作家의 새로운 活路를 爲하야 出版界이 힘어지어야할 文化的責擔이 크다는 곳에잇다。吾人은 外國作家의 登龍門이 그

[社會]의 權威的出版機關에서 作家의 作品이 認定되어 出版되는데 잇다는 事業을 잘 알고 잇거니와 現在朝鮮에 이러한權威와 實力을 가진 出版機關을 몃個所나 가지고잇는가?

한個의 力作으로서 文壇에나타나는것보다도 몃個作品의 發表로서 作家가되는 朝鮮의 文壇이란 實로 奇異한 存在다。이反面에는 實로 한個의 力作을 認知하여주지안흠으로서 文壇出世를 못한다는 그런境遇도잇으리라 그러나 實로 朝鮮文壇 乃至 朝鮮文學이 새로운建設의 길을 것기爲하야는 小說마하며래도 新聞連載小說以上의 藝術價値를 가진作品이 노피評價되고 또出版되機會가 許與되다는 한個의 毅然한 事實이 實로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것이다 外國文壇에 잇어서 未知의 文學學徒가 한個의 作品을 出版함으로써 全文壇의 커다란 센세이슌을 일으키는 事實이 좀더 이 地域에 잇어서도 當然히

[踐實] 되어야 할것이 그以上으로 꾸르ー프의 意氣가 그前의 作家를 拔擢하는 조흔機會를 맹그러주는 環境이 許與될수잇다면 또 어느때까지新人의 出世에 對하야 그 素質과 才分을 發見하는데 至大한 關心을 가지며 文藝의 發展도 同時에 形成되여 진다면 朝鮮文壇이 朝鮮文學에 寄與하는바 決코도 그리 적은일은 아닐것이다

이러한 若干의諸事實을 極히 抽象的하게 觀察하여본다면 오늘의 朝鮮에잇서서 出版事業이라는것이 얼마나 커다란 使命을 가질수잇고 또時急히 要望되어야 할것임도 推知될바이다。提出될바 幾多의 文化的諸問題에 對하야 이 方面의 企劃이 文化的만아니라 思想 乃至 科學이 이르기까지 實質的 成果를 爲하야 新鮮의길을 것는 勇敢한 行動力이 出現될바 明日을 約束할機會는 아직 그到來가 멀고도 아득할것일까?

ー(完)ー

「바란드」의 明湖

「워ー스워ー드」가 愛吟하든……

映畫化 『베르느』作品

[모스코바發聯合郵信] 今年은佛蘭西의 有名한 冒險小說家 『쥬ー르·베ー르느』가 一九〇五年三月卄四日에 逝去한으로부터 三十年忌가 됨으로 『모스코바』의 『키노·콤비나ー트』에서는 그의 小說「그란트 大尉의 아들」을 映畵化하기로되엿다。監督은 『V·웨인스톡크』氏 이다

新刊紹介

▲예수 八、九合月號 平壤府下水口里九〇 예수교회中央宣道院發行 振替京城一二三六五番 定價十二錢

▲少年中央 七月號 京城府堅志洞一一一 朝鮮中央日報社發行 振替京城五五七八番 定價十錢 送料五厘

鋪道·狂女·漫談
(上) —여름의三魔—
李歎河

사람은 休息을 차저 山으로 바다로 가지만은 나에게는 休息이란 休息도 업고 如前이 鋪路를 하로에 한차례式 것고잇다。무엇이 엇더케 되든지 여름한철은 이

[鋪] 道를 떠나 지나것다는것이 가을이면 가을내 겨울이면 겨울내 봄이면 봄내 나와 鋪道를 떠나지 아니하는 親切한 心臟의 하나이요 單調한 나의 日常의 한그을한 慰安이엇다。그러나 나는 그러케 期待하고 잇는이여름에도 結局 如前히 東大門에서 鍾路四丁目에 일으는 나의 憂鬱의 길을 하로에 한차례式 걸어야 하게되엿다。

×

鋪路를나서 윈처음 맛나는것은 열두어서너살나는 참봉狂女에 이에는 또약볏네려쪼이는 이즘에도如前히 발강바령을 둘러맨채 鋪道에주저안저 아츰부터저녁까지 지나가는사람들을 向하야 빌고만잇다。狂女의비는擬態이 複만하다。이에는비다는것이 努力을 經濟하지 손으로비는 것이아니요 팔뚝으로 비는것이다。그러고 빌다는말이

[萬] 一 나의推測하는비와 가터 손을마조대고비비는데서 와다하면 이에는팔뚝으로도 비는것이아니요 팔뚝을 左右로 휘내두른다는것이 正當하겟다。나는 이른봄어떤날 새라이새옷을가라입고 먼散步갓로 나가는길 이애의비는擬態이 하도滋味스럽기도하고 또나의하로의幸運을 祝福하기爲하야 銅錢두푼을 던저준일이잇섯다。그두푼을 두손으로 엄으마질때 번득이든 이애의 두눈을 나는오날까지 낫지아니하고잇다。그러나 不幸히 그날의나의散은 조치못하엿다。愉快한散步가되리라고 미덧든것이 午後부터 난데업시오는찬바람이 그날하로를 망치버리고말엇든것이다。그런以來 나는 이애에게는 될수잇는대로

[關] 心을 갓지아니하려고 이애압을지날때는 먼 南山을바라보며거름세를빨리한다

다음맛나는 젊은女子 미치팡이도 꺄하는 서로同이나되엿슬 時히 南喜嘗時計館앞 조고만卓地를根據삼아 아츰이면 겨오내 입어오는누덕이를뒤집어쓰고 우뚝허니안저잇고 저녁이면 웃옷 속옷할것업시 홀어헤치고 지나가는손님이 것을들어보고 하는婦이 아리랑타령 노래가락 또는나 아지못하는 이 曲調 저曲調를 옵조리고잇다。그의얼골은 미친사람의얼골치고는 넘어도 深刻하고 그의노래는 노래라기보다 한嗚咽한 咀呪 한絶望이라는것이 도로혀 正當할表現일것이다 그러면 이絶望과 이咀呪를바라야할對象은 大體무어인가。그것은 그의自身의

[論] 落의過去인가 의 먼先祖의 젊은날의 一時의亂暴인가。내가 이咀呪와 絶望을 들어온지 벌서엇행 잇해의 가을 겨울을 다적거도 이女子의 元氣만은 조금도 衰退함을 뵈이지아니하니 이咀呪와絶望은 아마이얼마든지 여러해를두고 드러야할 因緣을가젓는가한다。

새로發見된 地球에서제일가까운星座
—米國하ー버ー드大學天文臺에서—

[캠브릿지、마사추셋스州發聯合郵信] 米國『하ー버ー드大學天文臺』에서는 『하ー레ー博士』는 最近 마사추셋스州 『오ー크릿지』에 新設한天文臺에서 巨大한寫眞望遠鏡을 가지고 觀測을繼續한結果, 從來銀河갓가이 星雲의背後에 낫타나잇든 『캬메로발디1스』星座中의 光點『10342』가실상은 한개의巨大한星座이고 또한이것은 地球에가장갓가이 잇는것이라는것을 發見해서 벌서歐米의天文學界에 커다란센세이슌을이르키고잇다。『샤부레ー』博士의 撮影한寫眞에 依해서 測定한다면이星座는섯재로 큰 螺狀星雲이니 『안드로메다』座의 星雲及메시아33에 다음가는것으로 直徑 約一萬光年、地球로부터 約百萬光年의距離에잇스며 萬一 肉眼으로 보이는것이 可能하다면 滿月보다도 훨신 큰것이라고한다。從來 이별은 無數한 星雲으로 가리워저서 不分明햇든바 果然 一個의 별이냐 아니냐로 샤부레ー博士가 三時間에亘하야 露出撮影을한結果 드듸어 確定한것이다 有名한 월손天文臺에서도 最近 星雲群을通해서 이별의 螺狀인 『팔』을 撮影하기에 成功하엿다고한다

黑風 86
韓龍雲 作
金[illegible]超 畵

초연 10

왕한의 말하는것을 엿듯으로 듯든 콩난은 놀라고 이상한듯이 엄숙하게 고쳐다

『그러면 이폭포가 세계에 제일이 될까요 우리나라 여산(廬山)폭포와 어떠할까요 여산폭포를 보셧서요 선생님』

『꼭 세계제일이 될는지는 모르지마마는 다른폭포에 뒤지지안는 유명한 폭포입니다 여산폭포는 보지는 못하얏스나 놉히는 여산폭포가 더하나 다른것은 이폭포를 당할수가 업답니다』

『여기 안저서 폭포를 보니까 서늘한 기운이 절로나서 더운줄을 모르겟습니다 이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조굼도갑갑한것을 모르고 살겟지오선생님! 그러치안할가요』

『밧듯이 그러치도 아니겟지오 이곳에와서 폭포를보고 번민을 못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도 만습니다 마음속에 번민이잇스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시원한 물결도 화산에서 러저나오는 불꼿가치보이는것입니다』

『그럿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럿습니다 저의마음의 깁흔곳에 고요히 숨어잇는 번민이 잇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는 불로도 녹일수가 업습니다 은하수를 기우린대도 시츨수가 업습니다 그것은 철처의 원한입니다 이세상의 모든것을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풀지아니하면 견댈수가 업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한 승지를 구경하니 모든것이 시원하고 편안 하지마는 오즉 하나인 또렷한 그것만이 조곰도 움직이지 안습니다 선생님 이러한 말슴을용서하야 주서요』

하는 콩난은 갑작이 이것은 것을 깨다른듯이 얼골빗을 고치고 천연(天然)히 말하얏다

『그게 무슨말슴이야요 무슨일이기에 그대지 철천의 원한이 되실까요』

하는 왕한은 조곰 이상한듯으로 콩난을 보앗다

『그것은 부질업슨 말을 하얏습니다 저는 그원한을 푸는때까지 누구에게든지 말을 하지 아니하랍니다 선생님그것만은 뭇지마라 주서요 저의 원한이라는것은 이세상의 모든일과는 아모관계가 업습니다 조곰도 틀레히 여기지 마서요 다시는 이런말슴을입밧게내지 아니하기로 맹세합니다』

왕한은 콩난의말에 대하야적지아니한 의심을 가지게되얏스나 말하기를 질겨하지안는것을 구태여 무러볼것이 미안하야서 더뭇지 아니하고 폭포를보면서 혼저말비슷하게

『아! 웅장하고 시원하다 대장부의 정신은 맛당히 저러할것이다』

『대장부의 마음은 저러한것이 조치마는 녀자의 마음은 너무 웅장하고 활발한것보다 결꼭하고 깨끗한것이 조치아니할가요 저의 성격은 그러한것을 조아해요』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너무 결곡하면 변통성이 업기가쉽습니다 옥가티 결곡하고 물가티 동한다면 러상의 어겟지오』

콩난은 무엇을 생각하는듯하더니 이러나서 아메리카와 카나다의 경계선(境界線)에 가서 뚝바로 서면서

『선생님 이편은 아메리카 땅에고 저편은 카나다 땅이지요』

하고 왕한을 도려보다

『그러치오』

하는 왕한은 콩난의 뜻밧게 행동에

『저 좋답새가 무슨짓을 하랴고 저러노?』

하는 생각으로 뒤지아니한 흥미를 가지고 긴장한 기분으로 콩난의 다음행동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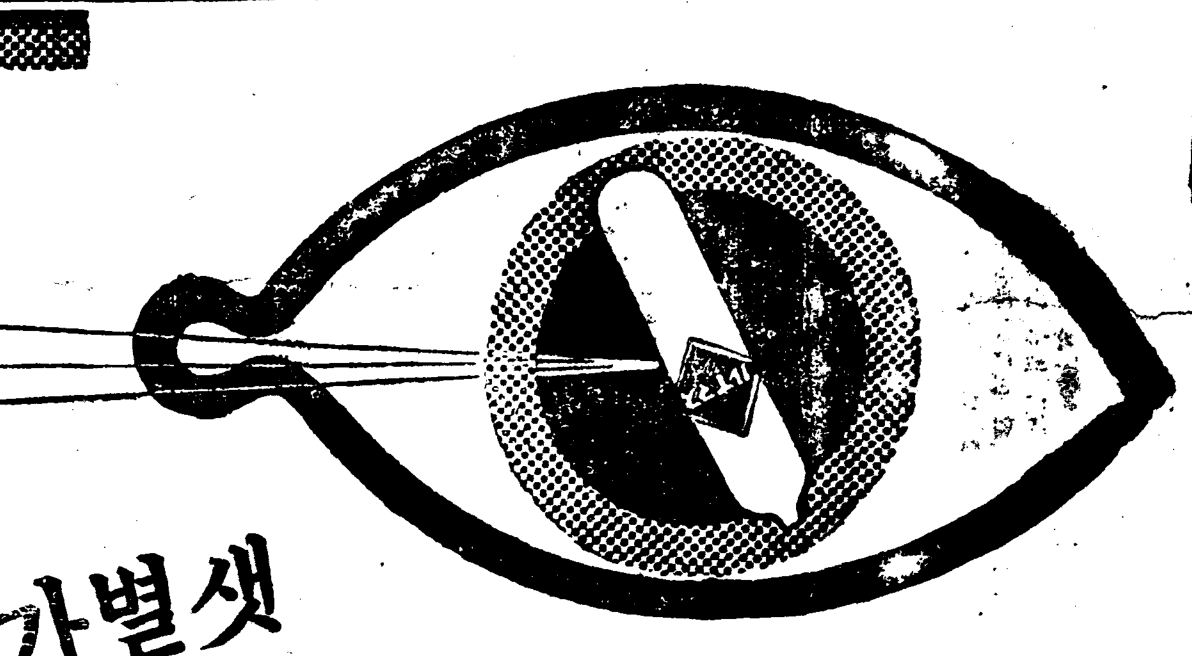
콩난은 발을 작우로 움직여서 양편땅을 밟고서면서

『선생님 저는 지금 어느땅에 잇는 사람이야요 카나다땅에 잇는 사람이야요 아메리카땅에 잇는 사람이야요 어느땅에 잇는 사람이야요 아르켜내서요』

하는 콩난은 우스면서 눈을 감고 섯다

왕한은 콩난의 뭇는말이 이상 하기도 하고 또는 밥대답을 하기가 거북하얏다 그리하야 조곰 생각하다가

『서반구(西半球)에 잇는 사람입니다 하얏다』



샛별가든스마일의눈에
紺碧의바다더욱곱다!

저酷烈한外光도私情업는海
水도스마일로깨끗케한健全
한눈瞳子는傷하게못한다!

스마일의容器는신듯하고輕快하며스퍼ー드한自動點眼式으로型은硬質가라스게곳다별가를使用한科學的으로萬全을期한것이다。

眼疾을막고
눈을보호하는眼藥

스마일은强烈한光線에서눈을保護하고、여러가지眼疾에도快適한治療効果를나터내고、더나가서는健全明朗한視力을維持케하는近代的眼科藥으로서副作用이나習慣性이되는일이全無하다。

主効
結膜炎
도라호ー무
角膜炎
眼精疲勞
眼瞼炎
充血

二十五錢●四十五錢 藥店에서販賣함

스마일

(總)代理店 玉置合名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全朝鮮米穀業者 總動員을劃策?

所得稅過重賦課問題로 群山穀物協會蹶起

【群山】 귀보＝一동향여하로미곡업자의 생존권에 중대한영향을 가지고잇는 소득세문제는 드듸여 팔백의 미곡업자를포용하고잇는 곡물협회에서 궐기하게되야 오는삼십일 군산곡물검사소(群山穀物檢査所) 루상에서 상임평의원회를 개최하고 동문제에대한 금후운동방침등을 결의하기로한바 동회의결의를 곡련본부에 상정하야 전선미곡업자을 동원시키리라 한다

故居先生追悼會

【水原】 고해거리규재(故海居李奎)선생은 수원교육계에 공허이만은중 불면불휴히 당지화성학원(華城學院)을위하야 삼십여년에안 천신만고를 배제하면서 영재준아를 다수배양함에 시종일관의 성열을 다한동화원의은인이라한다 지난륙월삼이일에 서거하섯다는데 이에대하야 수원유지 일반과 교우 일동은 오는 칠월삼십일오후두시 동화원강당에서 선생의 평생의공적을추모 코자 추도회을 개최한다는바 교우는 물론유지제씨는 다수참석하야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懸案中인平壤師範 附屬普通校問題 明年度에는實現?

【平壤】 다년간 현안중에 잇든 관립평양 사범학교(師範學校)의 부속보통학교 부설문제는 그간 예산관계로 밀리워오든바 근대에이르러 동교의 실습문제와보내보통학교 증설문제가 합하야 제는 드듸어 구체화하여 명십일년도 예산에 경비를 요구하여명년도에는 꼭실현키로 활동중이라는바 일반은 만흔기대를 가지고잇다한다

在大阪布敎師 佛敎聯合會組織

【大阪】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 조선내 불교각본산 각파에서포교사들이 대판에 건너와 부내각지에 포교소를 설립하고 포교하여오던바 지난 십팔일정오부터 동정천구 산구정 조선불교포교소(東淀川區山口町 朝鮮佛敎布敎所)에서 대판부내 각지에 산재한 포교대표승려(僧侶)들이 모히여 재일본조선불교련합회(在日本朝鮮佛敎聯合會)를 조직하고 상호친목과 조행을 청쟁히하며 포교사업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동시에 자선구제기관 설립을 결의한후 변전에 부당국을 통하야 내무성에 조선불교포교허가원을 젓출하엿스나 아직 내무성으로부터 구체적지시가 업스니 금후적극적허가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각기 본산에 교섭하야 조선내에서도 당국에교섭운동을 일으키기로 거듭결의한후 동륙시에 산회하엿다한다

玉突場取消를 洞民連署陳情

【元山】 만흔경제공황의 심각화에 따라 일반의생활이 나날이빈곤의일로를 더듬게되매 일부무의식 대중에는 자포자기하야 때로카단 적생활을 자감하야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적유희에로 마음을 쏫고잇스며 또한 그러치안으면 일시적고통을잇고 순간적안위나마 엇고저 술의향긔에 정신을 도취시키라는 이일반적퇴폐경향을 잘파악한 영리배들은 류기(遊技)라는 미명하에 관허라는 배경미테 공공연히 옥돌유기장(玉突遊技場)을 설치하고 일반노동자층의 흥수에급급하고잇는데 이옥돌은 최초에는 그야말로유희로 시작하얏다가차차 십전이십전 일케되다던가 그반대로 십전이십전 따다고 하면 자연히 도박긔분에 포로되야오원, 십원, 이십원입키가 항다반사가 되다고한다 이리하야 긴급히쓰고저 하든 돈을 일코 나종에는 유긔장 주인과 언쟁이 되야 삽긔등을 하게 차우게되는자가 만타는데 이러케피애를 입는자가온대에 원산역전 보음식점 고용인 가튼자는 월급을다가지고 이유기에 수십원을 일코 다시의복류를 전당하야가시고 이유기를하야 결국 삼십여원을 일흔일까지 잇다는바 이에 지난이십오일 원산부 본정오정목에잇는 김명환(金明煥)정원근(鄭元根)김장석(金長石)등 이십여명은 원산경찰서에 이『옥돌』류기장이 결국은 도박이되는동시에 이유기장 근처에는 매야불량배가 위집하야 왕래자에게 방해를끼치는일이 적지안을뿐안이라 풍기상에도 악영향을국하야 아동교육상 공중풍기상해를 끼치는일이 업이가안이죽 당국의 엄중한취체와함께 단연그허가 취소가잇기를 바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얏다는데 일반은그귀추를 매우주목한다고한다

本報仁川支局 夏期中國語講座 申請者連日遝至

【仁川】 본보인천지국 주최의중국어 강습회를 개최키로하고이십오일까지 신청을밧기로 하엿든바 장마와또는 여러가지관계로 개강일인 이십칠일까지 신청을밧기로 되엿다는데 일반은 이긔회를 일치말고 시속신청하기를바란다한다

指導者講習會

【宣川】 선천에서는 읍내네교회연합으로유년부 주일학교선생과 하긔아동성경학교선생을 중심으로 지난이십이일저녁여듧시반에 당지남교회내에서 지도자강습회(指導者講習會)를 시작하엿는데 시일은이십오일까지 사일간이며 동교선생은 강병주(姜炳周)김병구(金炳奎)량씨라고한다

李燕善氏美擧

【槐山】 괴산군괴산면 동부지에 거주하는 리기선씨는 금반중조선 축구대회(본보지국주최)에 우승긔와우승배를 기증하엿다한다

小兒井中溺死

【寧邊】 지난이십일일 오후칠시경에 평북 녕변군 팔원면룡두동(寧邊郡八院面龍頭洞)정병모(鄭炳謨)의 이녀군숙(君淑)(三)이가 자긔형과가티 늘려나간후 종적이업슴으로 그부모는 놀래여 사방으로 차저본바 근처에잇는 우물에빠저죽음으로 곳건지여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약십분후에 무참히 죽도록어버렷다한다

大盛況을豫期하는 第一回脚戲大會 本報支局後援으로

【新昌】 함남 신창청년부에서는 신창공립보통학교 교우회와 공동주최와 본보밋 중앙일보지국 후원과 신창해륙상공협회와 신창번영회의 협찬으로서 어한긔인 음력칠석을전후하야 자긔와가티 제일회 전조선 각희대회와 제삼회함남수영대회를 개최키로되여 방금 여원일동은 준비에 분망중이라는바 일반은 지금부터 대회의성황을 예긔하고잇다한다

▲時日 八月四、五、六日三日間、但(四、五日脚戲六日水泳)
▲場所 脚戲＝新昌假設運動場水泳＝新昌築港內架設臺—
▲賞品 脚戲部一等 金百圓(現金八十圓 銀컵一個) 二等金五十圓(現金三十圓 銀컵一個) 三等 金十五圓
◇水泳部
團體리레-賞 銀컵一個 (時價五十圓) 現金二十圓
遠泳賞 銀컵一個 스피-드賞現金十圓
各部等外副賞及雜賞
▲申込及通信一切
朝鮮日報社新昌支局內

西城公普校認可

【泰川】 평북태천군 서성면(西城面)공립보통학교는 지난사월경에 인가신청된 이래 일반은 하로밧비인가되믈을 갈망하든중 지난칠월일에 인가되엿는데 지금은방학긔임으로 래팔월이십일에 개교식을 거행하리라한다

裡里邑內에 短刀强盜出現

【裡里】 지난이십사일오전령시경에 리리읍영정 이정목에잇는일본내지인 상점인「히시야」양복점(ヒシヤ洋服店)에 돌연이인조강도가 침입하야「돈을내지안흐면 이칼로죽이겟다」고한자칼되는 단도를 들고위협함으로 때마춤 주인은 외출하고 업는사이라 녀자주인은 도망하려할지음 뒤로달겨드러서 녀자의둔(臀部)를칼로찔러중도케한다음진렬장으로부터 시가이십원가량되는양복두벌을가지고도망하엿는데 이급보를접한 리리경찰서 에서는 즉시현장을 조사하는동시에 범인을 엄탐중이나 범인은오리무중이라고한다

咸南道農家負債 勿驚千八百萬圓

그중에五割以上은高利債 每戶當에平均百圓

【咸興】 함남도 농무과의 조사에 의하면 륙월말현재 함남도 농가의 부채는 일천팔백만원의거액에 달하는데 전농가호수 십팔만사천호에 대하여 일호당백원이나되며 그중오할가량은 전부 고리채금이라고 한다는바 이로인하여 농가의 부채는 년부년가속도적으로 증가되매 농가의 피폐는 점점 혹심하여가는 현상이라고 한다

禁酒會를組織

【泥浦】 회양군 란곡면니포리(淮陽郡蘭谷面泥浦里)시민들은 금주회장 신금천(申今天)씨를 비롯하야 회원 이십여명이 금주회를 조직하고 그이일부터 본보(本報)를 애독하기를 결의하고 본회에위반될시에는 위반금으로 일원식 바다서 당지 서음학원(書陰學院)에 자본금으로 충당하기로하엿다한다

九十餘名勞働者 羅津으로輸送

【木浦】 신흥도시인 라진시가중앙(羅津市街中央)칠만여평매립공사(埋立工事)에 대하야 청부업자 지기조(請負業者志岐組)는 로동자 이백오십명을 전조선각지에서 알선해달라고 총독부에 의뢰하여온바 전남진도군(珍島郡)에서 구십륙명의 지원자가 잇서서 즉접 총독부파견인이 진도군에 와서 림회면(臨淮面)에서 팔십륙명과 진도면(珍島面)에서 십일명의응모자를 통솔해가지고 지난이십삼일에목포(木浦)에도착하야 일박후이일 이십사일오전구시사십오분발렬진로 즐발하엿다한다

第一回仝仁川 少年蹴球大會 大盛況을豫期

【仁川】 송림(松林)축구구락부주최와 본보 인천지국후원의 전인천소년 축구대회는 금이십오일로 신청을 막엇다는데 신청단체가 륙단체나되야 대성황을 예긔하며 제이(第二)공립 보통학교 운동장에서오는이십칠일오전구시부터 동이십 팔일량일간 개최하리라한다

兩西의水亂後報

平南各地의雨量 大同江增水四米六十

【平壤】 수일출모르고 지리하게 나리는 장마비도 이십오일아츰부터는 쾌청하엿든바 이제평양토목출장소에 달한 평남각지의 강우량(降雨量)을 보면 ▲寧遠四六『미리』▲德川六〇『미리』▲成川九二『미리』▲谷山六三『미리』 이리하야 대동강(大同江)은 이십오일 오전다섯시 최고증수사『미돌』에 달하엿다가 점점 감수됨으로 이로서 평남일대는 수란을 면케된 셈이다 그런데 장마것친뒤로 팔십오도를 중심으로오르나리든 수은주(水銀柱)는 일약구십도 칠부까지 올려 금년도의 최고긔록을 지엿다한다

延安溫泉水亂 浸水四十餘戶

【延安溫泉】 황해도연안온천에는 지난이십일부터 내리는폭우에 침수가옥이사십여호에 달하며부근일대는 무면대해를일루엇는데 교량과도로가끈허저서 일반시민은 대손중 전답에도막대한피해가잇다고일반은우려중이라한다

夢金浦行道路 七十餘間斷絶

【長淵】 귀보＝장연지방일대의대홍수는 실로근년에 볼수업는참상을 일우엇다 장연읍남리 농업학교실습지정천단(農業學校實習地場)부근 몽금포도로 칠십여간이 탁랑에휩슬리고 사태에 밀렷슬 뿐만아니라 논밧합것업시하해를 일우어 배를젓게 되엿다 각지에 교량도실과 하천증수로 교통이 두절되여 자못통신조차 끈허저 우편물체송도 하지못하고 막연히 염려에싸혀잇는바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몽금포 자동차도 아직 수삼일간은 통행할 가망이 업다고 한다

翠野一帶水國化 浸水家屋百餘戶

【翠野】 본격적림우는 지리하게도 개일날을몰으고 매일가티내리드니 지난이십삼일은 아침부터나리는호우로 취야일대는 홍수의세례를바터 백여호가 침수되엿든바 취야시소방조와주재소원일동의활동으로 손해는그리다액에달하지안헛스나 농작물의피해는 자못크다고한다

載寧郡下의 各地交通杜絶

【載寧】 황해도재녕지방에는 사오일전부터 련일 비가 나리더니 이십삼일에는 하로사이의 우량이 일백륙미리에 이르럿고 이십사일 아츰에는 황해선 서종(西鍾)상해(上海)간 금산(金山)재녕(載寧)간 백석(白石)창촌(倉村)간의 철도가 붕괴되여 일시교통이 두절되엿고 재령면 한천리 봉천리(載寧面漢川里,鳳泉里)삼강면학교리,금산리(三江面鶴山里,金山里)일대는 수국화하야 도해가심대하리라고한다

그女子의一生 (169)

방랑편　春園 作　夕影 畵

옥남은 한참동안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업다가 다시 고개를 들 때에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엿다。

「금봉이 용서해요。」

「아이 언니도。용서가 무슨용서요?」

「아니야。내가 죽일년이야。금봉이를 일생을 망치게한 년이어든。그래서 내가 금봉이헌테 사죄하려왓서요。금봉이 용서해 용。」

하고 옥남은 것잡을수업시 느껴운다。

금봉은 옥남의 할 말이 무엇인지 모르나 역시 눈물을흘리면서,

「언니。왜우우? 내가 언니헌테 용서해드릴께 잇스면 무엇이나 용서할테니 우시지말아요」

하고 옥남의 어깨를 만진다。

금봉은 옥남이가 우는 양을처음본다。남자 가튼 옥남이가우는것을 볼때에는 더욱 처량하엿다。

「고맙소。금봉이 고마워」

하고 옥남은 으스러저라 하고 금봉을 껴안고 눈물에 저즌뺨을 부빈다。찬 물과 가타보이던을 남도 이러한 열정을 가슴 속에 감초고 잇섯던가하고 금봉은 더욱 슬펏다。

둘이서 한참동안 서로 안고 울다가 옥남이가

「금봉이 나 냉수」

하야 냉수 한 그릇을 받이나 마시고나서、어릉어릉한 눈물을 씻으면서、

「그러니」

「그러니 나는 실패햇는데 금봉이가 나선단말야。내 생각에는 그 때까지 금봉이는 어린애 갓고 동생으로 보아도 셋재 동생이나 되는데、금봉이가 나서고보니 어듸 나하고야 경쟁이 되느냐말야。금봉이는 그야말로 합시속에 너허두엇던 깨끗한 숫처녀야 미인이야、재주가 잇서、어듸 무엇 하나 부족한데가 잇나? 게다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깐 임이 금봉을 못 잇는 모양이란말야。그 사람은 솔직하거든。그러니깐 못견듸게 샘이 난단말야。그래서 어떠케 해서든지 훼사를 노호라고 결심을 하고는 ——아니 부끄러워서 이 말을 다어떠케 해? 금봉이 용서해요」

하고 두손에 얼굴을 못는다。

「어서 말해요」

「그래서는 입을 보고는 금봉이 흉담을 막 헤지。잇는 소리 업는 소리。그래도 안 되니까 심상태를 주겨서 금봉을 후려내라고 하고。그것도 안되니까 약중에는 손선생헌테 편지질을 헤지。금봉이가 임이랑 심이랑 허구 조하한다구。어서 혼인을 해버리지아니하면 영영 노처버리리라고。그리고는 내게 회대로 되는것을 보고 나는조하서 혼자 웃엇지。그리고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옵바를 추겨서 영자허구 임허구 혼인을시켜노코。그리고는 금봉이 괴로워하는것을 보랑으로 금봉이더러 들러리까지 서라고 하고。금봉이 내가 이러케 괴악한년인줄은 몰랏지。금봉이는 그래도 나를 밋고 언니언니 하고 따랏지?」

하고 애원하는눈으로금봉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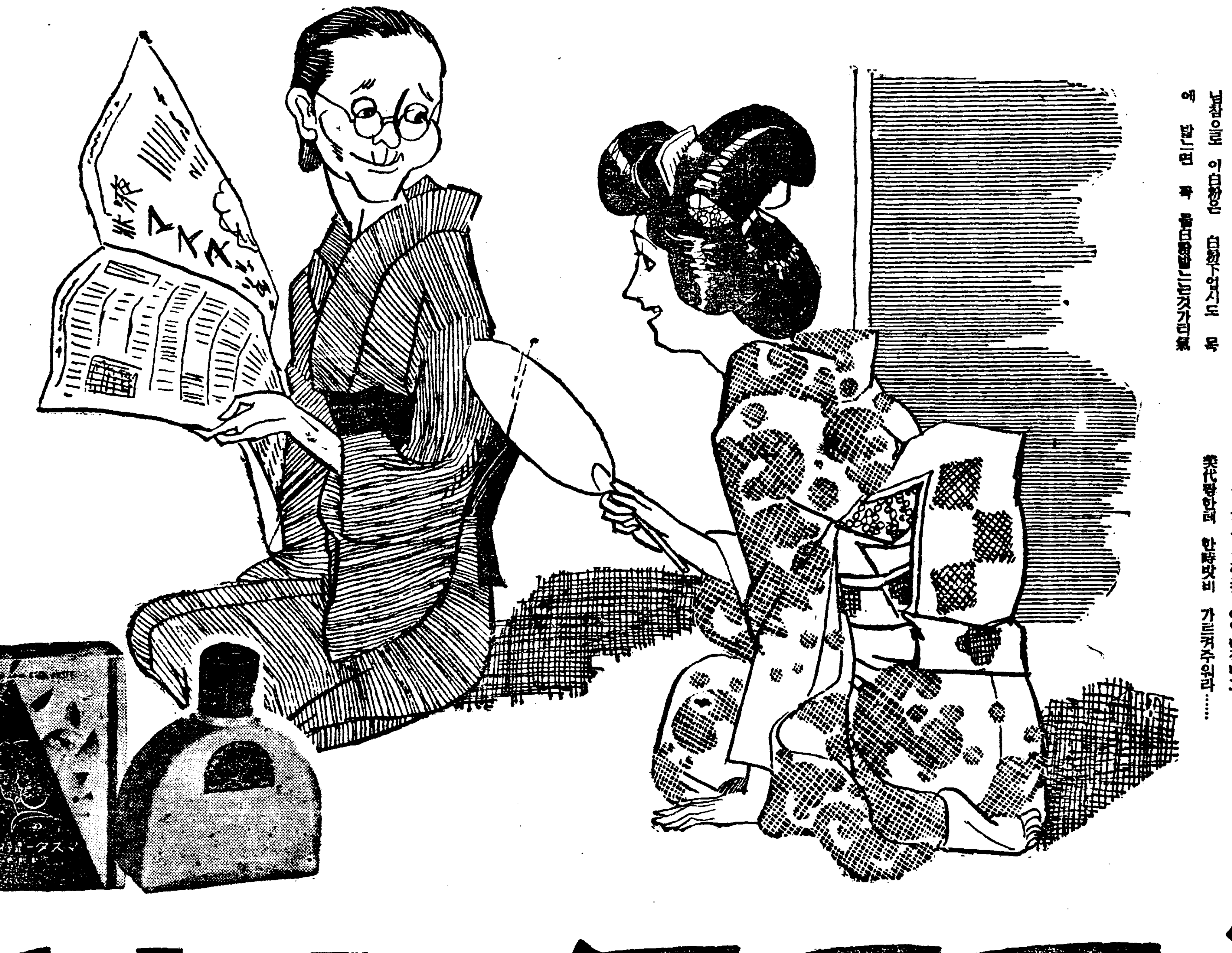
금봉은 이 말을 듯고 파라케 질렷다。얌히 캄캄해지고 전신이 풍마른 사람모양으로 떨렷다。입에는 침이 마르고 손발 끄티 금시에싸늘하게식는다

금봉은 당밧에 옥남에게 대들어서 그 아가리를 찌고 눈깔을 호벼주고십엇다。칼로 그 가슴통을 우비어주고 십엇다。그러나 전신이 엄어부터서 손하나 음직할수가업섯다

옥남은 금봉의 이런 모양을 보고 머리가 쭈벽하도록 무서웟다。그러나 제 한 간이 그단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말을 계속하엿다——

「금봉이。내 할 말을 마자 하께、그 말까지 듯고는 나를 때리든지 밟스길로 차든지 칼로 찔러죽이든지 마음대로 해요。분풀이를 바다싼 년이니깡 그러치만 내 말이나 마자 들어주어 옹。내가——이런 몹슬년이 어떠케、그래도 금봉이 압페 와서 제 죄를 자백할 생각이 낫든지、그 말까지나 들어주어 옹」

하고 금봉에게서 을 무슨 보복이든지、그것이 설사 칼로가슴을 찔리는 일이라 하더라도 다 달게 바드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는 태연하게 대접에남은 냉수를 마자 마시고 금봉의 눈이 제게로 향하기를 기다린다。금봉의 눈은 마치 운명하라는 사람의 눈 모양으로 허공에 바혀서 움지기지를 아니 한다。



어머니 엇저면!

「엇저면 白粉을 보세도 그러지미잇는 곳만보세요……」

「이애야 이것봐라。舊兒은 본래속살이 히낫가 必要업지마는 美代짱에는 참으로 조흔것을발견하엿다」

「호호호 저는 이마스타液狀白粉의 新聞告을 엿태것밟더와당니다……참으로 살비랑부터히고 어엽버지든데요……어머님참으로 이白粉은 白粉下어시도 목에 발느면 꼭 물白粉발느는것가티 分조케 말너버림으로 속속한다음로 살작 놀느기만하면 아조석보얏케 어엽버진담니다。……」

「그렇든가、나는白粉바르는것가리 안보앗다……이新聞에도 쓰엿는데 이白粉은 살을 보호하는 힘이 滋養으로 살도압겸거하고 美肌物質이 들어잇슴으로 늘쓰면 속살까지 보얏케 어엽버진다고……美代짱한테 한時밧비 가르처주워라……」

주무시기前에 白粉지우는데!

マスター (마스타) ドルーコ クリーム (콜드크림)

白粉下가 必要업는

マスター (마스) 液狀 (エキジョウ)

エリ白粉 (타 衿 백분)

借金政策不永續
惡性인푸레愼戒、漠然樂觀排擊
過剩發行이면財政破綻

高橋藏相聲明 公債漸減方針

【東京電話聯合】高橋藏相은 二十六日午前에 公債政策에關하야 압에와 가튼 談話의 形式으로써 聲明을 發하엿다

×

昭和十一年度豫算編成方針에對하야 는먼저 閣議決定을 거처서 公表한 것인데 이에對하야는 世間에서도 大藏政府의 意向을 諒解하엿슬것으로 생각한다 當時도 말한바와가티 豫算編成이라고 하는 오즉 大藏省의 힘만으로 解決할것이 아니다 各省의 協力에 依하여만 될것인데 다시 한거름을 나아가 생각하면 財政의 問題는 國政全般解決의 열쇠임으로 오즉 政府當局의 손에 매친것이 아니라 國民全般의 考慮와 協力에 依치안흐면 안될大問題이라고 생각한다 이 見地로 하면 最近의 財政問題 特히 公債의 問題가 顯著히 世人의 注意를 끌게된 것은 매우 조흔일이라고 생각한다

×

財政의 現狀은 今後 어느 期間에 亘하야 每年 相當한 額의 歲入補塡公債發行은 不得已한 情勢에 잇다 만약公債政策이 一兩年만으로 그必要가 업게된다면 一時 多額의 公債 增發도 或은 相關업다고 생각한다 만약 압흐로 幾年이라도 歲入補塡公債의 發行을 繼續치안흐면 안될境遇에는 今年、來年과가튼 目前의일만 생각할수업고 오래동안에 公債政策의 破綻에 안빠지게 하는計劃알에 나아가야만 될理致이다 만약 압흐로 公債가 一般金融機關等에 消化되지안코 發行公債가 日本銀行의 引受로만되면 이것은 明白히 公債政策의破綻으로 그 結果 所謂 惡性인풀레의 弊害가 나타나 國民의 生産力은 消費力과 並行하야 生活不安의 事態가 생기게될 念慮가 잇다 그럼으로 今後 永續하야 軍事産業其他 重要한 國家施設의 實行을 保障하고 또 同時에 産業의 發展과 國民生活의 安定을 確保하랴고 할에는 먼저 公債政策의 圓滑한 運行을圖함이 絶對的要件으로된다

×

그런대 昭和七年度以來 每年 相當한 巨額의 公債發行임에도 不拘하고 이번까지 多幸히 그運用은 理想的으로 하야 아즉 公債에 伴할 實弊를 發見치안헛다 물이혀 金利의 低下와 景氣回復에 資한이 不少하엿다 其上의一部에서는 이효果에 着目하야公債는 얼마큼發行하드래도 漠然한樂觀說을 가지고 잇는사람도잇고 또 오늘 政府가 取하고잇는 公債政策은 아즉不充分하야 積極的으로 公債를 增發하야 國家의經費를 더膨脹케하자는말도 잇는모양이다 그러나 公債의 過剩發行으로 因하는 財政經濟의破綻에 對하야는 歐洲大戰後 多數한나라에 그實例가 잇는바로 公債는 얼마큼이든지 發行하야도 相關업다고말하는最近 各國이 經驗한것을 無視하는 議論이다

×

昭和七年度以來의 公債政策이 圓滑히 運行되는데 對하야는 重大한 原因이 잇다 卽 그 發行에 對하야 手段方法을 고친것도 그 原因으로볼것이데 公債의 發行額이 民間産業資金等과의 關係上 金融機關의 消化能力範圍內에 그치게되엇과 昭和八年度以來 歲入補塡公債는 年年 얼마씩 減少하고 財政에 對한 國民의 信用이 維持되엿고 通貨의 信制가 理想的으로 되야 物價와 外國爲替市勢는 安定하고 딸어서 近時 産業貿易의 進展에 資한일等으로써 根本原因이라고 볼수가 잇다 지금까지 公債에 關한 政府의 생각과 顯著히 相異한意見이 世間에 流布되는 모양이다 그一例를 들면 公債는 國民의 債務가되는 同時에 그債權으로써 公債의 增發도 國民全體로서는 何等影響이업슴으로 公債의 增加는 國民負擔의 過重이 아니라 何等두려울것이 못된다는 論이 잇다 이것은 公債를 通하야 債權과 債務가 併存하는事實만은 그와갓다 그러나 公債가 增加하여도 財政上과 國民經濟上 相關이 업다는 結論이 簡單히 될수업고 國家의財政도 그 機能에잇서 國民經濟活動의 一部를 構成하는 同時에 獨自의 存在가잇는 것으로 財政이 保持되지안흐면 軍事外交 産業其他國家의 活動을 繼續保證할수 업다

×

또 公債를 생각하야 國家其他 公共團體의 經濟와 個人經濟를 不問하고 借金政策의 永續할것이 아닌건 當然하다 公債增發에 伴하는 利拂費는 漸增하고 租稅其他의 收入도 그支拂에 조기는 結果가 되고 이와가튼事態가 생기는 國費의 公債에 依한部分이 더욱 만케되고 財政의 窮乏에 안빠질수가업다 이와가튼 狀態가되면 國家財政의 信用을 維持키어렵고 公債의 消化는 窮境에빠저 結局 印刷機械에 依하야 債務를 增發할 破綻에 일을 것으로 이외가티 所謂 惡性인풀레의弊는 必至할 形勢가 될것이다 그럼으로 公債의 問題는 다만國內의 債權債務의 均衡이라는 狹少한 見地에서 是非를 論할것은 될수가 업다 其他의 異說에 對하야도 事物로는 一面의 理가 잇지만 國家社會全般에 對한 影響을 忘却한 議論이 만흔모양이다 前에도 말한바와가티 硏究는 매우 조코 딸아서 國民全體의 協力에 依하야 永續性이 잇는 國家의 發展策을 確立하라고 생각한다

朝鮮産業調査會
具體的各種目內容
明年과來明年間의臨時機關
大大的調査에着手

旣報한바와 가티 産業調査會를 昭和十一、十二兩年間 臨時機關으로設置하고 朝鮮産業의大大的調査를 하기로되엇는데 그 調査硏究의具體的種目은 다음과 갓다

▲殖産局關係

一、商業에關한事項
(가) 商品의改善發展에關한方策
(나) 生産에伴하는 販賣處理를合理的으로할方策
二、貿易에關한事項
三、旣存工業改善에關한調査의件
四、今後助成할工業調査의件
五、資源開發에關한件
六、日本內地及 朝鮮工業聯絡統制에關한件
七、鑛物資源의合理的開發策
八、鑛工業企業의連絡과 그誘致에關한方策
九、北朝鮮水産資源開發에關한調査
十、淺海利用開發에關한調査
十一、沿海漁業經營方法合理化方策
十二、漁獲物配給機關의改善
十三、漁船遭難防止及漁船保險制度의硏究
十四、漁業金融의硏究
十五、水産團體經營의合理化

▲農林局關係

一、將來의農業移民對策
二、自作農의維持創設에 關한方策
三、農産物의 販賣、組織의合理化에 對한方策
四、農家의 負債整理에對한方策
五、有畜農業의獎勵上適切한方策
六、朝鮮牛의 增殖에 關한方策
七、蠶種의 國家管理 其他蠶의生産費低減에關한方策
八、棉花增産에關한方策
九、特用作物及蔬菜栽培及 그處理獎勵에 關한方策
十、肥料의 合理的供給에 關한方策
十一、冷害對策의硏究
十二、開墾可能地의分布利用調査
十三、水利安全畓의分布及利用改善策
十四、國有林의 合理的管理經營方法의 確立과 林利增進에關한方策
十五、未利用林의 開發에關한方策
十六、『발프』材、五倍子의國策上必要한林産物의利用及增産에關한方策
十七、林業試驗의 擴充에關한件
十八、林地利用處分에關한調査硏究
十九、民有火田對策
二十、砂防事業의促進

▲學務局關係

一、實業敎育으로 하야금朝鮮産業의開發 振興上가장適切케할具體的方策

▲內務局關係

一、産業開發上特히緊要하다고認定되는 土木事業의 種別個所及施設의大要

▲財政局關係

一、重要貿易의 生産及消費狀況調査에 關한事項

鮮航同盟會解散、自由競爭을開始
◇……一縷希望은總督府調停

【大阪電報】鮮航同盟은 廿四、五兩日評議員會를 開하고 尼崎汽船脫退通告에 依한 今後의對策을 協議한結果 來八月一日부터 同盟의存在만 남기고 實質上解散하야 徹底的으로 自由競爭에 委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어 直時總會를 開하고 右件을 可決하는同時에 大要如左한 聲明書를 發表하얏다

이結果昭和五年 十一月以來의 鮮米積取統制는 崩壞되고 當分은 自由競爭時代를 보이게 되엇는데 此間에잇서 唯一의 希望은 總督府의 調停에係하고잇다한다

鮮航同盟은 八月一日以降共同計算制度를中止하고 會社獨自의 立場으로自由配船積取를할

定하고압흐로는 猛烈한 積載競爭이展開될 形勢인데 이推移가 重視되고 出廻의 時期를엿보아 靜觀的 態度를繼續하는總督府는 이대로 自由積載를 放任하면 一部大荷主는 利益을 바들것이나 小荷主는 매우 困難한處地에빠질모양임으로 此際 何等의 解決策을 講究하라고 腐心 한다 總督府의 事態收拾策으로는 朝鮮內 荷主의結束을 圖함을 第一主義로하고 먼저 穀物聯合會에 向하야 積極的으로 活動할 모양이라고 한다

事態收拾策
總督府에서도苦心中

朝鮮米專屬 運賃紛爭은 尼崎汽船의 脫退로 因하야 鮮航同盟에 急變이 생기고 事實解消를 斷行하고 自由配船을 하기로決

放任外無方途
穗積殖産局長談

鮮航同盟會의 「풀計算」廢止局으로보아 過般來 紛糾의現狀維持가 繼續되면 新穀期까지는 엇더한 統制를 行할必要가 잇다고 생각하엿는데 事態가 이려케되것은 도리어 비와서 땅이 구더지는것과가치 되어가는대로 放任할수박게업다 調停에잇서서 荷主는荷主 船會社는 船會社로 各各自己들의 立場에서 統一되야 利害對立의 境遇에될것으로 荷主中에도利害對立 船會社中에도 初割對立만 잇고보면 엇절수업는일이다 勿論朝鮮米 輸送의 重要性은 總督府로서도 考慮하고잇스나 現在 具體的으로 말할수는업다

和蘭金本位危機가增大
內閣總辭職으로

【電通海牙二十六日午前二時發】和蘭코라인 內閣은 財政難으로 重大危機에 直面하든바 二十五日夜 閣議를열고 深更까지 熱議한 結果全閣員은 辭表를 提出하엿는데 和蘭의 金本位危機는 增大한것이라고 觀測된다

銀行又利上 正改又斷行發表

【電通암스텔담 二十五日發】和蘭銀行公定割引步合은 二十五日 또 一分引上의六分으로 改訂發表하엿는데 同行은 二十四日 三分에서 五分으로 올닌것을 金流出阻止로 또急遽히 再引上策을 取한것이라고한다

길다貨運命=

【電通헤ー그二十六日發】코라인 內閣總辭職에 依하야 길다貨의危機를 傳하든바消息通은 昨夜和蘭銀行이 再利上을 行한것은金本位의 不安이增大한 때문이아니고 內閣總辭後의 不安人氣를 相殺하려는 政策的利上으로 따라길다貨는從前대로 安泰하리라고한다 그리고 政府는 和蘭銀行과 協力하야어데까지던지 國際投機側의길다貨攻擊을防止할 方針을取하고잇는데 强力한後繼內閣의 出現與否에 依하야 길다貨의運命이決定되리라고보인다

滿洲國의鑛業法
九月一日實施

【新京廿六日發聯合】滿洲國鑛業法은 이미 國務會議를 通過하고 廿六 參議府에 上程하야 八月一日로부터 公布할 豫定이다 그러나 實施期日은 一個月의猶豫期間을 設置하야 九月一日로부터 實施할 豫定이며 本法과 同時에施行될 關係法規는 다음과갓다

一、鑛業法施行細則
一、鑛業稅法
一、鑛業登錄法
一、鑛業登錄稅法
一、鑛業開發株式會社法

日本品과競爭
米國商人이割策說

【電通紐育二十五日發】米國의파이어스톤·타이야고무會社社長헨·리밋치、필드氏는 二十五日 자바로부터 當地에、歸來하얏는바同氏의 談은 다음과 갓다 同社는 今回 자바에 새로히 타이야工場을 設立하얏다 右는 主로 東洋市場에서의 日本商品과의 競爭에 便케하려는것이다

全滿農作
收穫豫想內容

【新京二十五日發聯合】今年度第一次 全滿農作物 收穫豫想(六月三十日 現在)은 滿鐵當局、經濟調査會 實業部等의 各關係機關의 實地踏査에 基하야 實業部에서 收計中이든바 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實業部에서 關係者 最後의 協議를 行하고 二十七日 大連、奉天、新京、哈爾賓 各地에서 一齊히 發表하기로 되어다 今年度의 作況은 北滿은 平年作以上이나 南滿은 播種期 旱魃로 若干의 減少를 豫想하고잇다 한다

滿洲팔프事業
目下新設計畫

【電通新京二十五日發】滿洲國內에 目下 新設計畫中의 人絹팔프會社는 東滿人絹팔프、滿洲팔프等의 各社에 八月中認可키로 內定한바 右各社에서 豫定森林地帶 二百七八十萬町步에 亘하야 調査한結果에 依하면 杉松赤松等 人絹팔프의 材料로되는 優秀木材十億石에 達한모양임으로 各社가 모두年産三萬噸을目標로 滿洲國當局과 目下 折衝中이라한다

朝鮮內繭市勢
◇廿六日農林局

月日	場所	高價	低價	買馴
七月二十三日	明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十二日	驛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鏡城(鳳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會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經濟界消息

○朝鮮電力幹部決定=【大阪電話聯合】朝鮮電力에서는 廿五日 大阪事務所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하고 代表取締役專務一名、監査役一名의選擧를 行한結果 取締役에大興電氣 小倉武之助氏 監査役에京都電燈副社長田邊隆二氏가當選되엇다고

財界悲觀論 (二)
一軍需株는惡目買 輸出關係株는良賣

如斯하야赤字公債의 濫發과赤字公債의不消化와 財政不安 財政인푸레의 推進力이 되는것이다 그럼으로 推進力과 根本原因을 區別하여야할것으로 財界인푸레의根因은 生産力以上의 消費에잇고 如斯하야 비롯오 赤字公債가 起함에 及하야 財政不安、公債不信을 招來하고 財政인푸레를 結果하고 財界인푸레를 推進식힐뿐이다 그러면 財界인푸레의 根因인 生産力以上의 消費를 招來할 戰爭과如한 大事件이 不遠한 將來에잇다고 바랄수업는 限 財界인푸레가 안되겟스니 赤字公債를 암만 發行할지라도 財政不安 公債不信은안되다 그런 지안흘으로 財界는 인푸레化지 안코 떼푸레化할터이며 況財界가 인푸레化하면 赤字公債는 딸리지 안흘것이니 赤字公債增發에 切한 政府로서는 極力으로 財界인푸레를 阻止하겟스니 이것이 財界悲觀의 第一 理由이다 그리고 資本主義崩壞時代에잇서

財界는 떼풀레로될수박게 업다 이것이 財界悲觀의 第二理由이다 또今日의財界난 인푸레를濫買하야 그訂正이 行하는中이니 이것이 財界悲觀의 第三理由이다

그리고 輸出大勢가 不利에傾하야 日本內地도 消費力以上의 生産力으로生産過剩의 情勢에잇서 從하야 赤字公債를 암만發行하야도 그것은 空殼하는外에 업다 이것이財界悲觀의 第四理由다

그럼으로 財界前途를떼풀레化할것으로보아 悲觀하며 從하야當分財産은 金의形으로 保持함이 得當할것이다 但株式과財界는 반드시 一致치안코 財界떼풀레를 이미豫想한 軍需株는 惡目을 買하야도 조흐나 好績人絹과 如한 輸出關係株는 賣一貫이다

商況 (廿六日)
株式 揉合裡에低移

前場低落

高橋藏相聲明은 公債漸減方針을 말하얏스나 이미말된 感想이엇고外電스틈 反落、帝人日魯等 雜株低로 主力株도 閑散餘狀이엇슴으로 當地도 少落되어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一圓低 百三十六圓十錢 日産四十錢低인 六十九圓에 各大引되고 日本石油三十七圓、日魯漁業新二十八圓、日本鋼管新三十二圓五十錢、滿鐵六十三圓九十錢이엇다

後場鈍重

後場은 東新百三十六圓ㄱ 日産六十八圓九十錢 大新八十二圓八十錢에 朝新二十五圓四十錢에 凡調寄後 鈍重裡大引

東新漸落步調

漸減方針을 示한 高橋藏相의公債政策聲明은 今日 發表되엇는데 市場에는 別로 波紋이업섯스며 今前場은 日魯帝人低로東新이 百三十六圓臺로 弱하고後新은 五圓臺로 漸落步調이엇다 綿絲人絹은 不勢이나 生絲가七百圓소리가 나와 反撥이 不可侮이때문에 目前엔은 이것을好感하며 問題인 日産은 社債의 解決便法으로서 直系會社가 借入金을 하기로되어 日鑛이 興銀、三井으로부터 一千萬圓融通을 受하얏다 傳하나 軍需株外는 大衆이 株로向치안어 全般的으로는 氣弱하며 紡績、人絹株不勢와 相俟하야 東新가른것은 迷徨이다가 漸落에 轉한모양이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九	五三	五一三五〇
東新	四二	五一	七二〇五〇
大新	三四	五四	七六四八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枚 ▲人造羊毛二〇〇 ▲大同電力六六〇 ▲同新七〇 ▲拓六六〇 ▲大同産業二三〇 ▲川崎造船二五〇 ▲日滿亞麻一四〇 ▲川崎코쿠스三〇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株式市場의軟調와共히 買氣不振이오 各債共히 頭重商狀이다 ▲甲五分利一〇四、一五▲一回四分利不申▲二回四分利不申▲佛貨四分利一八六、八五

今日財界 (廿六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米(仁川)改良 一石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illegible]	[illegible]
銀 一匁賣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三盆	[illegible]	[illegible]

期米 消極的의 細刻
前場底堅

昨後場東京三十圓六十五錢止와 共히 二十九圓四十一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十六錢인 再昨止價보다의 十寸反高를 據하고 二十九圓五十錢인 九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十一錢으로 小押하엿다가 十六錢에 反彈함에 따라 三節四十八錢으로 五十錢까지 反高하더니 結局阪地 十六錢에 歸臨히 場을止함에도 蓬萊米의 入來 又는 拂下米逆移入等 弱材로 氣幾分旺盛하야 四十五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 二十九圓四十八錢에 三丁高로 始場後 二節四十六錢 三節부터 五節까지 四十五錢同價로 伸惱하야別棚가리 止場하다 (終)

供給難우업스나 渡米調達注目

昨今 朝鮮內에는 日本內地로부터 拂下米中 昭和八年産의 朝鮮米 一萬石의 逆移入을 見하야에 至하고 또 今朝 三井物産을 通하야 蓬萊米 一萬五千四百三十袋의 移入이잇서 正米界의 人氣를 幾分軟化케하는 觀이잇고 日本內地米界도 政府米를 繼續拂下한 關係로 供給不安은 업슬모양이나 그러나 渡米의 蒐集이 一大 關心處이다 政府拂下米는 大部分이 昭和八年産으로 渡米에 供할만한 品格을 喪失하고 適其米에 適用될만한 살은 大槪 買方의手中 又는 思惑側의 懷中에潛在하여잇슴으로 그蒐集이 容易하다고볼수는업다 그럼으로 如干供給不安이업다는것을 弱材視할수업거니와 稻作狀況으로도 目前의現象으로는 樂觀을 못하지안는바아니나 아즉도 天災가 重疊한 今日에잇서 豐作으로 確斷할수업슨즉 渡米調達難이 當分强材化하지안흘가한다

弱材? 强材?
拂下米逆移入

昨年拂下米中 昭和八年産 朝鮮米는 京城 仁川倉渡石 二十八圓으로 萬石이나 逆移入을 見함에 至하엿다 此가 弱材인가 强材인가를 一考하면 例年에도 端境期에는 種種逆移入된 때가 업섯든것은 아니나 大體本年은 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이 夥多하엿든마큼 其實朝鮮內의 在米는 日本內地보다도 又一層品薄을 告함에 至하엿고 從하야正米의 實勢도 日本內地보다 頑强하야 採算이 맛지안는 關係로 移出이 比較的 不振한狀態에잇다 이러한 까닭에 朝鮮의 從米不如意으로 逆移入을 豫想하게 된다는것보다도 商人의 理算이 有利한 關係로 出한인데 逆移入을 見하는 그反面으로는 昭和九年産으로의 良質米는日本內地로 移出되고 말것인즉 逆移入으로하여 朝鮮米價의 低落을 招致하기 까지에 至하지는안흘것가튼즉 참아리 押目買의 方針이 良策이 아닐가 한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 3969 振替京城 334

市場六感

株

東新은 漸落步調▲ 高橋藏相의 公債減 聲明으로 새삼스럽게 怯낸것은 아니하드래도 이로써增稅念慮는 더하게되엇고 日魯帝人等 雜株低로 氣弱해진듯▲强氣는말하되 『돈이업는것이 아니오 預金增加、社債好賣行이證하는 資本豊富는 否認못할일로 株式을買치안흠은 過度로 人氣가 萎縮된때문이다▲金利低下步調、預金利下人氣等에刺戟되어 重工業에의 人氣傾到와 低價로떠러저서 買키쉬움게된 紡績株에對한 復舊市勢가 가을市勢의 序幕戰을 展開식힐 動機가되리라』고▲六感子 元來가을 市勢를 否認하는者아니나 다만 東新가튼것은 最後的 大突込이잇서야겟다는 點만은 어듸까지던지 밋고십흘뿐

米

昨今朝鮮米界는 拂下米의 逆移入과 蓬萊米의 移入으로 軟派는 唯一한 弱材로 보고잇다▲供給不安을 憂慮하는 今日에 업마큼 有助하지안는바는 아니나 丸仁三等米는 依然二十九圓九十錢을 維持▲그러나 그反映으로는 朝鮮米의 日本內地 移出이 來米穀年度까지 繼續될 모양이니 逆移入米 一萬石과 蓬萊米一萬五千四百餘袋의 移入이 그다지 弱材化하지는못할모양▲南朝鮮은 依然雨量不足의 歎을 뭇하고 中部地方은 水害가 相當한 모양이니 大體 豊作은 難望▲그러고 日本內地는 土用의 好天을 樂觀하는 中이나 압흐로 모든 厄日이 橫在한 今日인마큼 또한 安心不許▲그뿐아니라 渡米의 調達은 依然困難할 모양이니 期近의 反落도 亦難望▲軟派는 日 此邊의 繰返을 天井의 鐵鍊이라 主張하고硬派는 日昴騰途程의 一呼吸이라고한다 ▲어느主張이 當을 得할지는 疑問이나 三百餘丁 騰勢로의 五六十丁反動落에止할뿐으로 此邊에서 揉合함을 보면 아즉 高價를 남겨노앗다하여도 過言이 아니라고도 한다果如何?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買方主力 山中商의 利喰가 頭重하고 其他 一般의 利喰으로 波瀾이 豫想되던 當限도 買方의熱上 市勢에 至치안코 下押하얏다 休日前 七萬七千四百石의 建玉을남긴 當限도 買方의 利喰과 乘換으로 職氣을 延長하야 波瀾업시 渡米 三萬五千石 程度의 平凡한 納會로 보이나 依然 賣逃實現狀임으로 買方의 動向은 注目된다

賣方 地場處分 東京側乘換、
買方 神戶側、株式側、地場

各地正米

京城同商 品薄顯著로底意强硬이나淸算不勢로一息商狀을示한 ⊖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丁

仁川不動 拂下米의 出廻期에 當面하야 地場의 買氣가 全無하며 賣玉側도 逆移入米를 歡迎하고 잇는狀態로 商狀이자못 閑散모양한 ⊖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六十錢

釜山一息 市場出廻三千叺 變方觀望人氣와 日本內地注文皆無로 取引이 極度로 不振이오 渡而 當用小口의 物色買가 二四四叺을 賣됨뿐이며 極端閑散場面에限한 角ㄱ三等 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錢

大邱保合 原料正租의 拂底와 産地의 先高稀望濃厚로 全혀 買物이업고 精米側은 거의 休業모양으로 場面無風狀態인角ㄱ三等三十圓ㄱ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群山不變 日本內地拂下米의 割低로 全然買注가 업고土用天候의 順調推移로 一般이買氣不添하야 頭重氣味인 變ㄱ三等二十九圓九十五錢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金融 (廿六日)

◆日本銀行券 ◆東京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六日)

◆大阪正米標準價 ◆京城穀價 ◆仁川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商品 (廿六日)

◆京城綿絲布 ◆京城雜貨 ◆大豆◆滿洲大豆 ◆大連特産市況 ◆大阪砂糖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綿花 ◆大阪綿絲 ◆海外砂糖 [illegible]

株式 (廿六日)

◆朝取短期 ◆大阪長期 ◆大阪現物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廿六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